

# 세플러+원

Schaeffler Korea Plus One 2014 Spring Vol.36



## In Schaeffler

page 06 세플러가 만난 사람  
차라리 벵장이처럼 일하면 길이 보인다



## For Life

page 34 프로에게 배우는 열정  
봄날의 커피를 좋아하세요?



## To Communicate

page 46 따뜻한 시선  
무거운 거울을 털어내고 새봄을 맞이해요





Cover Caption

이번 '힐링 가족 캠핑'에서는 중부물류센터 반구섬 주임 가족이 양평 솔들캠핑장을 방문했습니다. 봄병아리처럼 재잘거리는 채영이와 소정의 귀여운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발행일 2014년 4월 15일(통권 제36호)  
 발행인 김재현  
 편집인 이법진  
 발행처 서울 종로구 종로1가 교보생명빌딩 14층  
 Tel. 02.311.3019  
 기획·디자인 (주)디자인페이지  
 Tel. 02.324.9422  
 출력 하우두 그래픽  
 인쇄 예림 피앤피

이 책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PAGE 06 : 세플러가 만난 사람  
 소비재산업센터 한제웅 사원이 만난  
 시원스쿨 이시원 대표



PAGE 10 : 세플러를 찾아서  
 안산공장 사우들의 전주공장 탐방기



PAGE 14 : 체험 1박 2일  
 연구소 제품기술팀 선상낚시 체험



PAGE 18 : 세플러 애정촌  
 이겨레 사원과 양지은 사원,  
 헤이리에서의 어느 멋진 날



PAGE 22 : 부모님, 감사합니다  
 한정규 사원과 부모님의 서울사무소 방문

Cover Story

04 행복은 성취의 기쁨과  
 창조적 노력이 주는  
 쾌감 속에 있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In Schaeffler

- 06 세플러가 만난 사람  
차라리 벵이처럼 일하면  
길이 보인다
- 10 세플러를 찾아서  
세플러 속의 세플러를 보다
- 12 원더풀 베이킹  
세대별 자동차용 휠베어링 집중탐구
- 14 체험 1박 2일  
남쪽 바다 너머로 다가온  
봄을 낚는 사람들
- 18 세플러 애정촌  
헤이리에서의 어느 멋진 날,  
책의 숲에서 당신을 만났습니다
- 22 부모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부모님, 대견한 우리 아들
- 24 세플러인 탐구생활  
기념일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 26 Happy Birthday  
당신의 지친 발에  
달콤한 휴식을 선물하는 날

# 세플러+원

2014 SPRING Vol.36

세플러인의  
 꿈과  
 함께하는  
 라이프  
 스타일  
 매거진



PAGE 26 : Happy Birthday  
 안산공장 생일자들을 위한 생일 선물



PAGE 30 : 힐링 가족 캠핑  
 봄바람 불던 날,  
 반구섬 주임 가족의 캠핑 나들이



PAGE 34 : 프로에게 배우는 열정  
 정상호 사원의 핸드드립 체험기



PAGE 38 : 내 인생 최고의 여행지  
 여행수기 공모전 수상작 2편



PAGE 46 : 따뜻한 시선  
 연구소 사우들의 '동보원' 청소 봉사

For Life

- 30 힐링 가족 캠핑  
소나무향 실은 봄바람  
불어오던 날의 가족 캠핑
- 34 프로에게 배우는 열정  
봄날의 커피를 좋아하세요?
- 36 모두가 궁금한 상식사전  
파스타 소스를 둘러싼  
두 회사의 전쟁
- 38 내 인생 최고의 여행지 01  
지리산 천왕봉에서의 1박 2일
- 40 내 인생 최고의 여행지 02  
부부가 되어 함께  
첫 걸음을 내딛던  
특별한 그날
- 42 100세 시대 나는 이렇게 준비한다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한  
건강관리 7노드

To Communicate

- 46 따뜻한 시선  
무거운 겨울을 털어내고  
새봄을 맞이해요
- 48 새로운 시선  
꽃망울을 터뜨리는 봄꽃처럼  
새 출발을 알립니다
- 53 Schaeffler Focus
- 55 Schaeffler News
- 59 Schaeffler Hotline

# 행복은 성취의 기쁨과 창조적 노력이 주는 쾌감 속에 있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 Happiness lies in the joy of achievement and the thrill of creative effort.

〈Franklin D. Roosevelt〉

항상 여러분이 달성하고자 했던 최선의 결과만이 행복의 잣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표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도전하는 과정들 속에서도 언제든지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취의 순간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가까워지는 목표를 위해 노력을 다하는 지금에도 여러분 모두가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용진

아시아 퍼시픽 인더스트리얼 사장 겸 인더스트리얼 부문장

# In Schaeffler 이 한장의 엽서

● 전주공장 불베어링 생산3팀 박종길 계장

덧밭 주변에 배수로를 만들면서 잔돌들이 많이 나왔다. 이 돌들을 어디로 치워야 할지 난감해하는 나에게, 아내가 돌담을 쌓는 것이 어떠냐고 건의했다. 나는 돌담을 어느 세월에 다 쌓냐며 대뜸 소리를 질렀고 그것을 계기로 조그마한 말다툼이 시작되었다. 아내는 그럼 자기가 쌓겠다며 나보고 간섭을 하지 말라고 했다. 계획을 세운 아내는 일일이 수레에 잔돌들을 싣고 나르면서 하나하나 돌담을 쌓고 있다. 벌써 2개월째다. 주말마다 쌓는다. 완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것 같던 돌담은 이제 제법 길고 예쁘게 만들어지고 있다.

‘성실’. 누구나 쉽게 접하고 쉽게 말하는 단어지만 모두가 그 정확한 뜻을 아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에서는 성실을 ‘어떤 일에 목적을 정해놓고 정성과 최선을 다해 꾸준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라고 정의해놓았다. ‘성실’의 끝에는 단 열매가 따라오기 마련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성실히 움직일 때 겪어야 하는 수고로움 때문에 이를 놓치고 만다.

우리는 직장에서 생산, 보수, 제작, 개선, 계획 등 여러 형태의 일을 하고 있다.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면 대충하는 식의 업무는 지양해야 한다. 주어진 일에 대한 철저한 계획, 정확한 데이터로 바탕으로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품 하나하나에 정성과 성실함을 깃들이지 않으면, 입맛이 굉장히 까다로워진 요즘 고객들은 우리 곁을 떠날 수밖에 없다.

고객을 타겟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해야 살 수 있다. 성실은 우리의 무기가 될 것이다. 성실하면, 우리 모두 아내의 돌담처럼 아름다운 결과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 차라리 벵장이처럼 일하면 길이 보인다

서울사무소 소비재산업섹터 **한제용** 사원이 만난 시원스쿨 **이시원** 대표



이것저것 궁금한 것이 많은 한제용 사원의 갖은 질문에, 이시원 대표는 특유의 입담으로 명확한 답변을 해주었다.

한제용 사원은 소비재산업섹터에서 기술 지원을 통한 신규 사업개발 및 프로젝트 관리를 맡고 있다. 업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 유선 상으로 독일 본사와 업무 협력을 하고 있어 한국어만큼이나 외국어를 많이 접할 수밖에 없는 한제용 사원. 독일어를 비롯해 영어에도 관심이 많은 그가, 한국 최고 기초영어 강사인 시원스쿨 이시원 대표와 만났다.

## 익숙한 것일수록 기초가 중요한 법

외국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한제용 사원. 그만큼 영어에 자신이 없는 편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좀 더 완벽한 어휘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도전해야 할지, 오히려 모르겠다.

**한제용 사원(이하 '한')** 지하철 플랫폼이나 티비에서 시원스쿨 광고를 많이 봤어요. 강의를 들어보려고 웹사이트도 방문했는데, 초급자를 위한 수업만 있더라고요. 저는 어학연수와 해외인턴을 경험했었고, 그래서 영어를 아예 못하는 것은 아니라 초급자 수업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발길을 돌렸죠. **이시원 대표(이하 '이')**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만 영어를 배웠다고 쳐도 벌써 6년이나 영어공부를 한 것이거든요. 이만큼 했으니

기초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익숙한 것일수록 기초부터 탄탄히 해야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사칙연산이 서툰 사람이 미적분을 공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 그리고 보니 대표님은 캐나다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셨죠? 처음 캐나다에 가셨을 때도 영어를 잘하는 상태이셨나요?

**이** 아뇨, 저는 오히려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는 학생이었어요.

**한** 그럼 캐나다에서의 생활이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많이 불편했죠. 하지만 당시의 불편함을 당연하게 생각하기 보다는 넘어야 하는 과제들로 받아들였어요. 일어나는 일들을 단순한 현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의 도전으로 설정한 거죠. 생각하다 보면 항상 방법은 나오니까요.

시원시원한 그의 설명과 말투로, 이시원 대표에게 영어강사는 천직임을 알 수 있었다.



그의 개인 사무실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 바로 디제잉 기계. 디제잉 페스티벌에 갔다가 일렉트로닉 음악에 반했다는 그는 여가도 '베짱이처럼' 음악과 함께 여유롭게 보낸다.



### 개미보다는 베짱이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캐나다에서의 생활이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습관을 들이게 했다는 이시원 대표. 그가 시원스쿨을 시작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여기에서 나왔단다.

**이**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영어강사를 시작한 건 순전히 우연이었어요. 한 영어 학원 강사의 대타 강의를 잠깐 하게 됐었거든요. "자기소개할 때 어떻게 말하세요, 음식을 주문할 때 어떻게 말하세요"하는 식의 '상황을 빚겨나가기 위한' 영어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영어를 가르치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대박이 났어요. 수강생들 반응이 좋다 보니 본격적으로 영어강사를 하게 된 거죠. 입소문이 퍼지면서 기업 출강도 하고,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 상대로 1대 1, 1대 다 강의도 했죠. 그런데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썩 부지런 떠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사실 초반엔 강의에 늦기도 많이 늦었죠. 그래서 또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강의를 쉽게 할 수 있을까?'

**한** 그렇게 인터넷 강의를 시작하게 되신 것이군요. 하지만 무언가를 더 쉽게 하기 위한 고민을 하는 것을 나타해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이** 그런가요? 전 현실보다 훨씬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불편함에 익숙해지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요.

## Interview +one

서울사무소 소비재산업섹터 **한제용** 사원

완벽하게 해내지 못 했을 때 생기는 미련에 집착하기 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더 쉽고도 나은 방향으로 헤쳐나갈지에 보다 집중해야겠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또한 이시원 대표님과 대화하면서 '그 동안 내가 죽어있는 공부를 해왔구나'하고 생각했네요. 더 높이, 더 멀리 가기 위해 영어의 기초부터 다시 다져야겠습니다.



힘들어도 우직하게 하던 방법대로만 일을 계속 하는 개미보다는, 좀 더 쉬운 방법을 찾아 행동은 최소화하면서 결과물을 최대한화하는 베짱이처럼 일하라는 것이 이시원 대표의 생각이다.

### 쉽지만 치밀하게, 진심을 담은 것이 성공의 비결

**한** 어쨌든, 처음부터 인터넷 강의를 하겠다고 구상 중이셨던 것은 아니었네요.

**이** 제가 시원스쿨을 시작했던 2005년 당시 인터넷 강의는 단순히 오프라인 강의의 복습용이나 여겨질 뿐이었으니까요. 2개월 수강권 개념도 제가 도입했죠. 그래도 낯선 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내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내가 가르치는 것을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주면 성공하겠다'하는 확신은 있었어요.

**한** 사업 초기엔 낯선 것들 투성이였을 텐데, 어떻게 그것들을 헤쳐 나가셨나요?

**이** 지금 다니시는 회사에 입사했을 때, 어느 하나 새롭지 않은 것이 있었나요?

**한** 아뇨. 모든 업무가 새로웠죠.

**이** 사업도 똑같아요. 모든 게 새로웠지만,

어떻게 하면 들어가는 걸 최소로 해서 많이 생산해낼까 고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하나씩 배워갔죠. 만약 손실이 생겼다 해도 감수했어요. 그게 하나의 레슨이 되면서 계속 배워갔던 것 같아요. 삶이랑 똑같죠. 사람의 삶이란 원래 새로운 것을 만나고, 거기에 적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니까요.

**한** 다른 경쟁사와의 차별화 전략은요?

**이** 굳이 경쟁사와 차별화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건 내 회사보다는 오히려 경쟁사에 집중하는 거니까요. 대신 진솔함을 담았죠. 정말로 사람들에게 이득을 주고 싶은 진심이요. '진짜를 보여주겠다'는 마음으로 본질에 집중하고, '숫자들'도 꼼꼼히 챙겼어요. 마케팅, 홍보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손익계산 같은 것들 말이예요.

### 영어, 완벽함보다는 거침없음을 추구하라

**한** '쉬운 방법을 찾아 진심을 담아라'. 간단해 보이지만 어렵네요. 저는 완벽한 것을 추구하다보니, 뭘 할 때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것만큼 실제로 나오지 않으면 많이 좌절하거든요. 영어에서도 그래요. 완벽한 문장을 생각하다 말이 나오지 않고 말죠.

**이** 물론 완벽을 추구해야하는 분야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영어에 관한 한, 완벽함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이걸 놓는 게 중요해요. 완벽함만 따지다보면 노력한 것의 1~2% 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럼 너무 아깝잖아요. 영어에서는 완벽함보다는 자연스러움, 거침없음을 추구하세요. 틀리더라도 막 하고, 웃고, 또 틀리고, 웃고. 완벽함에 연연하지 않는 거죠. 완벽함에 연연하는 것은 카메라 감독들이 앵글의 세밀한 각도에 과하게 집착하는 것과 같아요. 정작 관객들은 스토리어나 관심을 가지는데 말이에요.

이시원 대표 역시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로 강단에 서지는 않는다. 심지어 과거에는 따로 교재도 없었을 정도. 간단한 강의 계획과 한 줄 주제, 예문 정도만 준비했다가, 수강생들의 반응을 관찰하며 더 효율적인 방법을 캐치해 그대로 강의를 진행한다고. 언제나 '더 쉬운' 방법을 찾는 베짱이 강사, 이시원 대표. 하지만 그의 진심이 담겨있기에, '더 쉽고 효율적인' 영어공부 방법으로 시원스쿨이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세플러 속의 세플러를 보다 생산환경의 개선을 통해 보다 능률적이고 안전한 일터로

안산공장 사우들의 전주공장 탐방기



전 세계 우수 업체들이 세플러의 제품을 선택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세플러코리아 제품의 품질이 업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세플러코리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생산 시스템은 좋은 품질을 뒷받침해주는 원동력일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다 나은 생산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각각의 사업장을 찾아가 그 우수한 시스템을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했다.

## '3정5S'를 지키는 전주공장

세플러코리아는 각 사업장마다 생산제품이 다른 만큼 설비와 시스템도 약간씩 다르다. 하지만 거리와 시간이라는 물리적인 제약 때문에 자신이 일하는 곳이 아닌 타 사업장의 생산환경을 살펴보기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렇기에 작업 도중 문제에 부딪힐 때면 타사업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매우 궁금해진다. 그래서 안산공장의 사우들은 전주공장 탐방을 요청했다. 전주공장 탐방에 나선 이들은 안산공장 생산팀의 김재균 사원과 유지완 사원, 설비보전팀의 김상중 사원. 전주공장은 '3정5S'를 실천하면서 업무환경을 확연히 개선한 생산라인이 안전과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 일하기 편하고 안전한 사업장

이번 전주공장 견학에는 전주공장 업무지원팀 최낙준 부장이 함께 동행하며 전주공장의 구석구석을 소개하기로 했다. 최낙준 부장은 입사 20년차인 베테랑 중의 베테랑으로 전주공장의 모든 부분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 전주공장의 특징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었다. 전주공장의 현장을 둘러보기에 앞서 전주공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3정5S'에 대한 부분과 실제 적용 사례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3정5S'란 '3정'이라 할 수 있는 정위치, 정품, 정량과 '5S'인 정리(SEIRI), 정돈(SEITON), 청소(SEISO), 청결(SEIKETSU), 습관화(SHITSUKE)를 뜻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생산활동 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이런 지침 하나하나가 실제로 적용될 때에는 반발도 적지 않았지만, 지금은 모두가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고 한다. '깨끗한 사업장에서는 사고가 없다'는 생각으로 업무환경을 개선해나가다 보니 업무 효율도 높아졌다고. 실제로 작업장 내에 안전을 위한 바닥 페인트 선 긋기에만 연간 2백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지만 업무 능률이 향상되고 안전사고가 현저히 줄어드는 등의 효과를 고려하면 그 이상의 시너지가 생긴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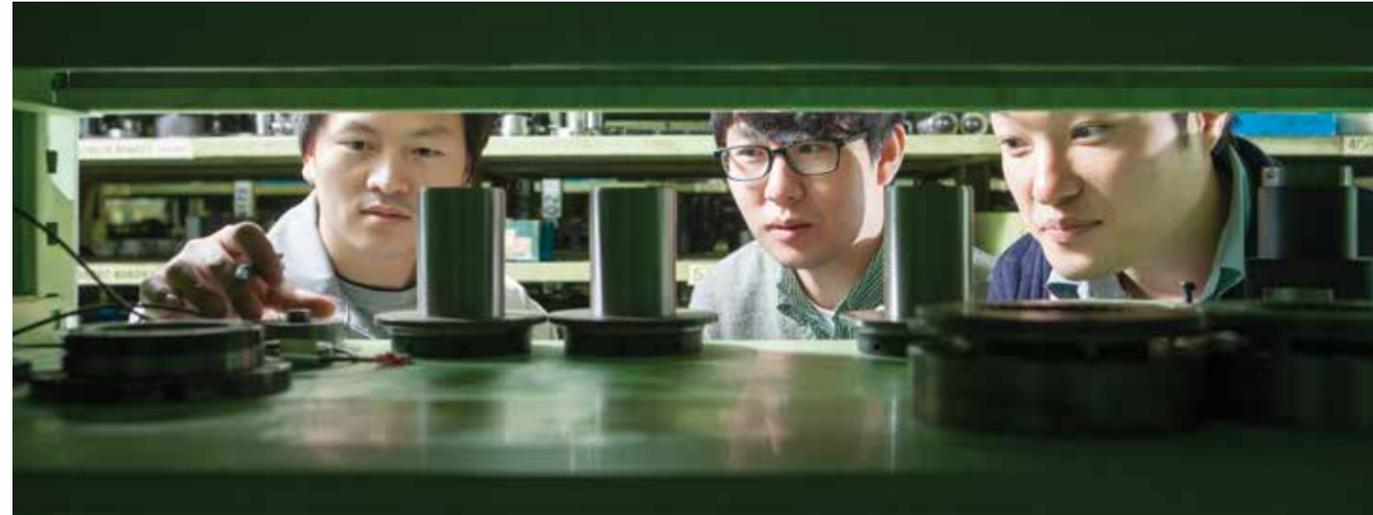
## 주인의식과 솔선수범, 그리고 서로에 대한 연구

전주공장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들은 후에는 현장으로 향했다. 전주공장의 주요 설비와 생산라인을 생산 순서대로 돌아보며,



안산공장의 사우들은 연신 눈과 귀로 그 모습을 담아두기에 바빴다. 전주공장의 자랑인 '원라인' 시스템은 전 과정에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부분을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전달하기 때문에 생산효율성과 안전성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한다. 생산의 각 과정을 살펴보면 안산공장 사우들은 특히 설비 바닥에 단 한 방울의 누유 자국도 없는 것에 대한 감탄을 마지않았다. 실제로 전주공장에서는 'My machine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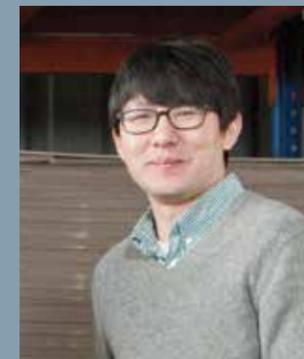
가'를 통해 자신이 일하는 설비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어 누유의 체계적인 관리에 확실한 성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그 밖에도 업무지원팀의 주관하에 현장 5S평가, Best & Worst 선정, 5S라인 집중점검 보고회를 실시하며 서로의 설비를 벤치마킹하고 개선 방법들을 찾아낸다고 한다. "결국 전주공장에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설비나 시스템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귀찮게 여겼지만 이제는 스스로 바닥에 무릎을 꿇



## Interview +one

안산공장 생산팀 김재균 사원

전주공장에서 활발히 시행하고 있는 '3정5S' 활동을 보고, 듣고, 느끼고자 했습니다. 전주공장이 생산제품, 공정의 흐름, 설비의 레이아웃, 설비 누유 등의 개선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보고, 듣고, 느낀 걸 하나하나 이루어낸다면 굉장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주공장의 자랑은 '원라인' 시스템으로, 전 과정에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부분을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전달하기 때문에 생산효율성과 안전성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다.

고서라도 설비를 점검하려고 하는 마음가짐, 즉 의식의 변화가 가장 큰 것이지요." 최낙준 부장의 말대로 의식의 개선이야말로 전주공장의 가장 큰 변화이자 다른 사업장과 차별화되는 경쟁력이 아닐까.

어느덧 전주공장 견학을 끝낸 안산공장 사우들의 얼굴에는 처음 전주공장에 도착했을 때보다 더욱 진지한 표정이 역력했다. 최낙준 부장의 상세한 설명뿐만 아니라 직접 둘러본 현장에서도 감지되는 열정과 자부심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이었다. 이들로 하여금 전주공장에서의 경험이 안산공장에서도 이어지게 되길 기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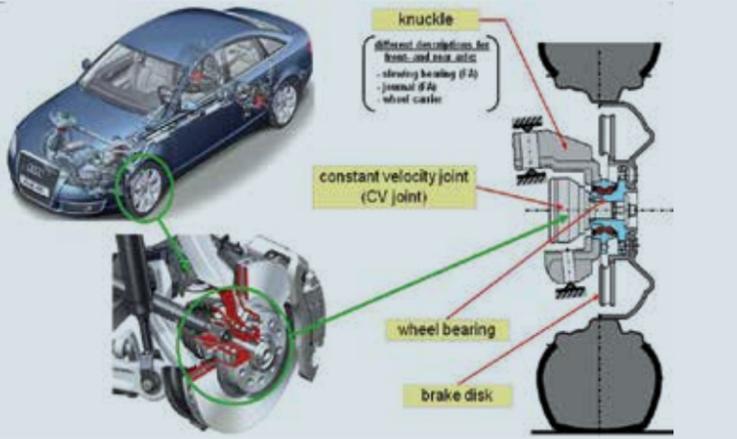
(좌측부터) 안산공장 생산팀 김재균 사원, 안산공장 설비보전팀 김상중 사원, 전주공장 업무지원팀 최낙준 부장, 안산공장 생산팀 유지완 사원.

# 베어링에도 세대 차이가 있다!

## 세대별 자동차용 휠베어링 집중탐구

### 휠베어링의 최근 추세

휠베어링은 차량의 하중을 지지하면서 바퀴의 회전을 원활하게 해주는 부품으로 너클, 허브 플랜지, 드라이브 샤프트와 같은 주변 부품에 체결되어 차량에 조립된다. 중량 절감, 조립 및 A/S 편의성, 시스템 원가 절감 등의 사유로 베어링에 주변 부품의 일부 요소가 일체화된 유닛 휠베어링을 적용하는 추세로 가고 있으며, 특히 베어링의 예압 관리에 유리한 \*오비탈 포밍 공정이 베어링 유닛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베어링이 유닛화된 정도에 따라 일반적으로 1세대에서 3세대까지 구분된다.



휠베어링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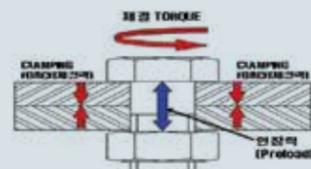
### \*오비탈 포밍

휠베어링의 최종 틈새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차량 조립시의 너트 \*\*클램핑을 대신해서 베어링에 축방향 하중을 부과할 수 있는 오비탈 포밍 공정이 도입되었다. 이는 축 중심에서 비스듬히 기울어진 치구가 공전하면서 허브 플랜지의 끝단부를 눌러 내륜을 축 방향으로 고정시켜 주는 공정이다.



### \*\*클램핑(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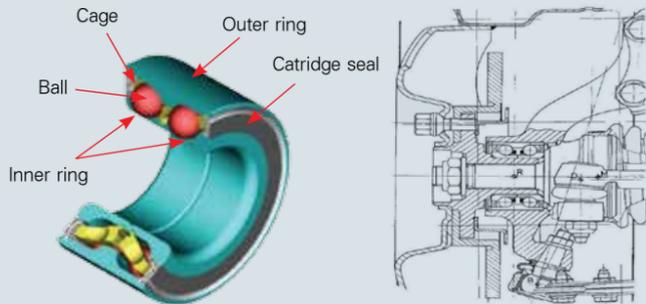
두 물체가 외력을 받아도 상호 간에 유동이 없이 풀리지 않고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클램핑'하게 되어 기본 원리는 아래 그림과 같다.



GEN1의 경우 너트와 볼트를 이용하여 볼트 축방향의 인장력으로 '클램핑'하게 되어 이러한 인장력을 얻기 위해 볼트나 너트 머리에 회전력(토크:Torque)을 가해 체결력(Clamping force)을 받도록 한다.

### 1세대 휠베어링, GEN1

Double row angular contact ball bearing, Double row tapered roller bearing과 같이 외륜이 하나로 일체화되어있고, 내륜이 두 개로 분리되었는 타입을 1세대 휠베어링이라고 한다. 베어링 내부의 전동체 타입(Ball 또는 Tapered Roller)에 따라 1세대 볼베어링 또는 1세대 테이퍼베어링으로 구분한다. 휠베어링의 경우 Application 특성상 외부 이물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카트리지가 타입 시일과 같은 밀봉 장치가 적용된다. 1세대 휠베어링은 차체에 장착될 때 너클과 허브 플랜지에 끼워맞춤으로 조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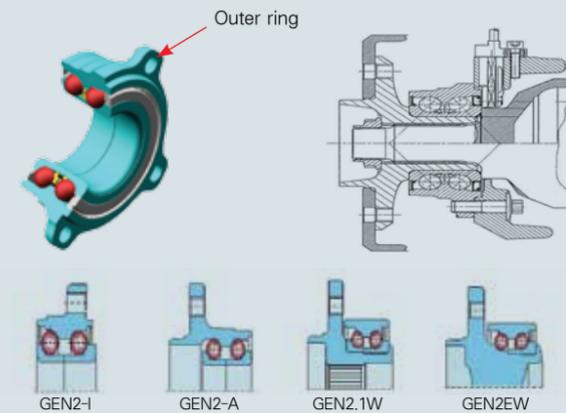


GEN1의 형상과 조립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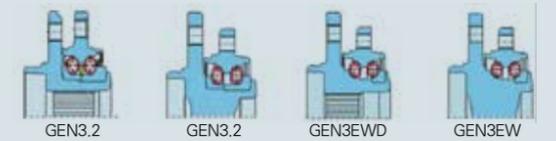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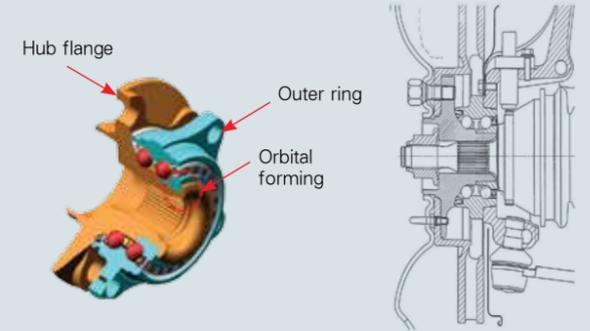
### 2세대 휠 베어링, GEN2

외륜 또는 내륜에 1개의 플랜지가 일체화될 경우 2세대 휠베어링이라고 부른다. 일체화된 플랜지의 위치 및 최종 조립 형상 등에 따라 GEN2, GEN2.1W, GEN2EW 세 가지로 구분된다. GEN1과 마찬가지로 전동체가 볼이 아닌 Tapered Roller가 적용된 경우에는 GEN2T로 부른다.

- GEN2-I : 너클과 조립되는 플랜지를 가지며 내륜 회전인 경우
- GEN2-A : 휠과 조립되는 플랜지를 가지며 외륜 회전인 경우
- GEN2.1 : 허브 플랜지에 GEN1이 조립된 경우
- GEN2EW : 허브 플랜지에 레도가 결합된 형태이며 반대쪽 내륜이 오비탈 포밍으로 조립된 경우



GEN2의 형상과 조립 형태 및 종류



GEN3의 형상과 조립 형태 및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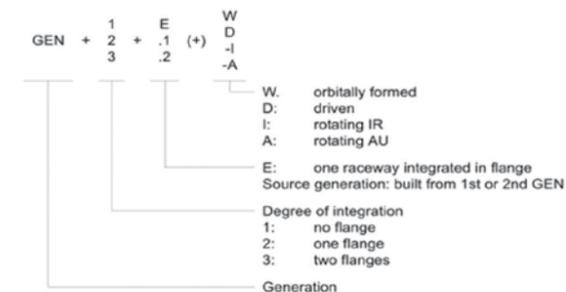
### 3세대 휠 베어링, GEN3

2개의 플랜지를 가지는 휠베어링 어셈블리를 3세대 휠베어링이라고 일컫는다. GEN2와 마찬가지로 형태에 따라 GEN3, GEN3.2로 구분하여 부른다. GEN2와 마찬가지로 전동체가 Ball이 아닌 Tapered Roller가 적용되면 GEN3T로 구분하여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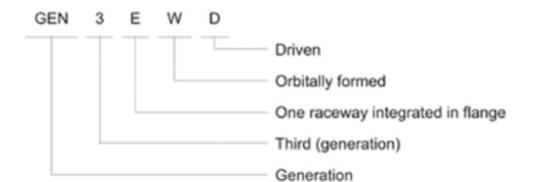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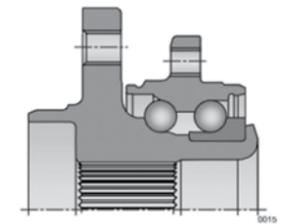
- GEN3 : 2개의 플랜지를 가지며 그 중 1개의 플랜지에 레도가 결합된 경우
- GEN3.2 : GEN2-I 또는 GEN2-A가 플랜지에 조립된 형태

### 휠베어링 명칭 체계

다음은 그룹에서 적용하는 휠베어링 명칭 체계이다. 더 쉬운 이해를 위해서는 적용 예제를 참조하면 된다.



휠베어링 명칭 체계



적용 예제 : GEN3EWD

# 남쪽 바다 너머로 다가온 봄을 낚는 사람들

연구소 제품기술팀 선상낚시 체험

산과 들녘에 봄꽃 소식이 한창이다. 하지만 봄은 산과 들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바다 속으로도 몰려온다. 무르익은 봄날의 한가운데. 소리 없이 다가온 봄을 낚아올리기 위해 바다로 나아간 사나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연구소 제품기술팀 사우들이다.



1 권혁동 사원 2 이재혁 수석연구원 3 이순철 사원 4 권순규 선임연구원 5 한진우 책임연구원 6 서상문 주임 7 이대경 책임연구원 8 남윤건 연구원

## 봄바다로 도다리가 돌아왔네!

봄이 되면 창원 진해구는 꽃돔살을 낚는다. 전국 최대 규모의 벚꽃축제인 '진해군항제'가 열리는 진해는 벚꽃만큼이나 많은 상춘객이 몰려오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진정한 봄을 만끽하려면 바다로 나가야 한다. '봄 도다리, 가을 전어'라는 말의 주인공(?)인 도다리 낚시가 제철이기 때문이다. 비닷물의 수온이 봄기운에 따뜻해지면 진해 앞바다로 살이 통통하게 오른 도다리가 몰려드는데, 어렵지 않은 낚시 방법으로 누구나 쉽게 도다리의 손맛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찬스를, 바다 사나이들이라면 놓칠 수 없는 법. 세플러코리아 연구소 제품기술팀 중 정예의 낚시 멤버 여덟 명이 봄 도다리 바다낚시에 도전했다.

## 준비는 철저히! 봄바다에 세플러가 떴다!

이번 도다리 낚시를 위해서는 진해구 제덕동에서 배를 타야 했다. 이른 아침 연구소 제품기술팀의 여덟 명 강태공들은 출조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제덕동 앞 항구에 모였다. 찬 비닷바람을 막아줄 외투에서부터 모자, 장갑, 선글라스 등 개인 장비는 물론 배 위에서 즐길 간식거리와 각종 음료(?)도 충분히 준비한 터였다. 낚시채비와 미끼 등은 배를 대여한 업체에서 제공하기에 특별히 낚시도구를 챙길 필요는 없었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 이미 두 손 가득 집이다.

7시 30분, 모든 출항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낚시배가 바다를 향해 나섰다. 원래 바다 배낚시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지라 악천후를 염려했지만 하늘도 돕는지, 바다로 나가는 길엔 바람 한 점 없었고, 파도도 고요하기만 했다. 그렇게 30분 정도를 나아갔다. 오랜 경력의 베테랑 선장님이 오늘의 낚시 장소로 지정해 정박한 곳은 거제 칠천



봄이 오면 진해만과 거제 칠천도 앞바다에는 살이 통통하게 오른 도다리가 많이 잡힌다. '봄 도다리, 가을 전어'라는 말처럼 최고의 맛을 느낄 수 있다.



도 앞바다. 도다리를 잡기엔 맞춤형 포인트 중의 포인트라고 한다.

## 진해 앞바다와 거제 칠천도에서의 짜릿한 손맛과 입맛

낚시아말로 '운칠기삼'이라고 한다. 제품기술팀 팀원들 사이에서도 간단한 내기가 벌어졌다. 씨알에 상관없이 대상어인 도다리를 많이 잡는 사람에게 1인당 5천 원씩의 거금(?)을 모아 상금으로 수여하기로 한 것이다. 다들 배에서 제공한 채비를 갖추고 드디어

바다에 낚싯대를 드리웠다. 지렁이를 미끼로 한 낚싯바늘이 바다 속 땅에 닿기가 무섭게 입질이 왔다. 짹째 낚싯대를 거둬들이니 크기는 어른 손바닥만 해서 조금 아쉽지만 제대로 모양은 갖춘 도다리가 올라왔다. 첫 수확이 주는 짜릿한 손맛의 기쁨에 모두들 환호성이었다. 이어 여기저기서도 손맛을 느끼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렇게 탄성과 탄식이 오가는 시간이 흐르고, 이내 점심시간이 되었다. 오전 동안 모든 참가자가 낚아올린 도다리 수를 세어보니 제법 마릿수가 되었다. 이것들을 모두 모



01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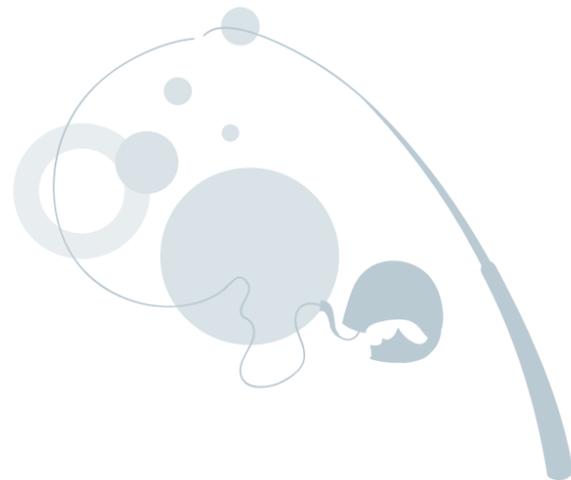
01 모두가 사뭇 진지한 자세로 봄 도다리 낚시에 열중했다.  
02 이번 낚시대회의 1등을 차지한 권혁동 사우

아 즉석에서 회를 떠서 점심 식사 때 같이 나눠 먹기로 결정했다. 선장님이 직접 도다리 회를 떠주는 동안 간단한 식사도 준비되었다. 오전 내내 노력한 대가치고는 적은 양이었지만, 그래도 산해진미가 부럽지 않은 자연산 봄 도다리 아니던가! 싱싱한 회 한 점을 초고추장에 찍어 입안에 넣으니 고소한 봄의 맛이 그대로 퍼졌다. 미리 준비한 곡차(?) 한 잔 또한 봄 도다리와 금상첨화였다.

**바다에 스트레스를 던져버리고 열정을 뉘아올리다**

이번에 바다낚시에 참가하게 된 연구소 제품기술팀은 사무직 77명과 전문직 6명으로 구성되어 프로젝트 매니저먼트, 제품개발 및 설계, 제품 평가 및 분석, 금속/화공재료 열처리 개발 및 분석, 고품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많은 인원의 팀이지만 평소 각종 경조사 및 이벤트, 회식에서 단합된 모습을 보인다. 특히 각종 운동 동호회 활동과 팀 내 단합을 위한 경기를 통해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가진다고. 이번 바다낚시에도 팀 내 낚시 동호회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참가했다.

이렇게 서로 간의 교감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업무의 효율은 확보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한다. 최근에 우리회사는 휠베어링을 신규 수주하였는데, 경쟁사의 독보적인 입지로 시장 진입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제품기술팀의 설계 및 개발 능력과 더불어 전사 관련 팀의 부단한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였다. 이는 세플러그룹 내에서도 대단한 성과이며, 앞으로의 전망을 더욱 밝게 만드는 일이었다. 이처럼 업무에서도 여가생활에서도 항상 최선을 다하는 제품기술팀은 진정한 프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봄바다에  
스트레스는 던져버리고  
열정과 팀워크를 건져올린  
연구소 제품기술팀.

**바다를 마주하고 느끼는 사나이의 동료애**

꿀맛 같은 점심시간이 지나고 또 한 판의 낚시가 이어졌다. 아직 제대로 된 월척의 손맛을 보지 못했거나 겨우 한두 마리만 잡은 것이 아쉬웠지만 해서 더욱 낚시에 여념이 없었다. 마릿수로 가능하는 나름의 낚시대회(?)는 아직 1등과 꼴찌의 차이가 별로 없었다. 살짝 덥다고 느낄 만큼 따뜻한 봄 햇살 아래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닷바람에 몸을 맡기고 낚시를 하니 나른함이 몰려왔다. 이내 누군가가 먼저 커피 한 잔씩을 타서 손에 안긴다. 그리고 이어지는 남자들의 말수 적은 수다. 경상도 사나이의 무뚝뚝함이 문

어나는 말투로 서로 그간의 안부와 업무에 대한 이야기, 사람 사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간간이 낚시대에 전해지는 목적인 손맛에 놀라기도 하지만, 이미 그런 건 어찌도 좋았다. 이제 다시 항구로 돌아가야 할 시간. 최종 확인을 통해 이번 낚시의 1등은 아홉 마리를 잡은 권혁동 사우가 차지했고, 모두가 오후 시간 동안 잡은 도다리는 스무 마리가 훨씬 넘었다. 봄 햇살도 봄바다도 봄 도다리도 다 좋았지만 서로가 함께한 시간이 더욱 좋았다는 아들. 일터로 다시 돌아가도 지금처럼 서로만으로 충분한 시간이 이어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Interview +one**  
연구소 제품기술팀 이순철 사원

평소에 3공장 낚시 동호회와 개인 출조를 하면서 돛 낚시(감성돔, 참돔, 뽕에돔)를 많이 다녔지만, 팀원들과 이렇게 순수한 선상낚시를 편하고 자유롭게 즐기며 여유회를 가져보는 것도 소소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평소 함께 얘기를 나누지 못했던 신입사원이나 동료들과도 많은 이야기들을 하며 더욱 친해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동료들이 도다리를 한 마리씩 잡을 때마다 같이 탄성을 터뜨리고, 누가 장원이라며 낚시 경쟁을 하면서 소주 한 잔에 봄 도다리 회를 맛보니 아주 즐거웠습니다.

# 헤이리에서의 어느 멋진 날, 책의 숲에서 당신을 만났습니다



아직 겨울의 찬 공기가 물러나지 않은 3월 초. 하지만 마음만은 어느새 따스한 봄을 기다리며,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한 해의 시작을 맞아 새로운 생명이 움을 틔우듯 우리 역시 또 다른 하루와 인연을 기대하게 된다. 생각만으로도 설레는 새로운 인연과의 만남. 그 설레는 순간을 만끽하기 위해 세플러의 매력남녀가 이곳, 헤이리에 도착했다.

COUPLE

이겨레 사원 | 양지은 사원  
서울사무소 동력장치센터 | 안산공장 GKAM사업부

##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공간, 책의 숲

금요일 오후 2시의 헤이리는 평화롭고 한적했다. 주말이라면 이들이 나온 가족들과 연인들의 발걸음으로 북적였겠지만, 평일 오후의 헤이리는 이곳만의 매력을 조용히 음미해보기에 좋았다. 세플러의 두 남녀가 도착한 곳은 헤이리 예술마을 가운데에서도 책의 숲이라 불리는 '북하우스'. 이곳은 지금의 헤이리를 있게 한 '헤이리의 메카'와도 같은 곳이다. 헤이리가 단지 황무지에 지나지 않았을 때, 가장 먼저 문을 연 '북하우스'는 사람들로 하여금 멀리서도 이곳을 찾도록 한 첫 번째 명소였다. '북하우스' 내 또 하나의 세계라 할 수 있는 '포레스타(Foresta)'. 이곳은 이탈리아어로 '숲'이라는 뜻의 북카페 겸 레스토랑으로 입소문을 많이 탄 곳이다. 그 이색적인 공간에 서울사무소 동력장치센터의 이겨레 사원과 안산공장 GKAM(Global Key Account Management)사업부의 양지은 사원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한눈에 모두 담기지 않을 정도로 많은 책이 다채로운 퍼즐처럼 펼쳐져 있는 공간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시작되었다.

## 세플러의 매력남녀, 오붓한 데이트를 즐기다

평일 오후의 카페는 도시인들이 바쁜 일상에서 잠시 떨어져 쉬어가는 공간처럼 곳곳에 여유가 묻어났다. 차를 마시며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노트북으로 자신만의 작업에 몰두하는 사람, 책을 옆에 수북이 쌓아두고 책의 세계에 푹 빠진 사람... 여유로운 카페의 풍경을 보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일상을 나누기 시작했다. 처음 만나기 전 메일을 간간히 서로 주고받았던 지라 세플러 커플은 어색함 없이 대화를 이어갔다.

두 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두 사람. 주위 친구들도 한창 결혼할 나이다 보니 아무래도 연애와 관련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 두 사람 모두 '대화가 잘 통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 이상형이라고. 어릴 때는 운동 잘하고 잘생긴 훈남 스타일을 좋아했다는 양지은 사원. 하지만 20대 후반이 되니 오랜 시간 함께해도 편안하고 즐거운 사람이 좋아졌다. 이겨레 사원도 이 말을 듣고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평소 수영이나 스노보드, 여행 등 활동적인 취미를 가진 그는 자신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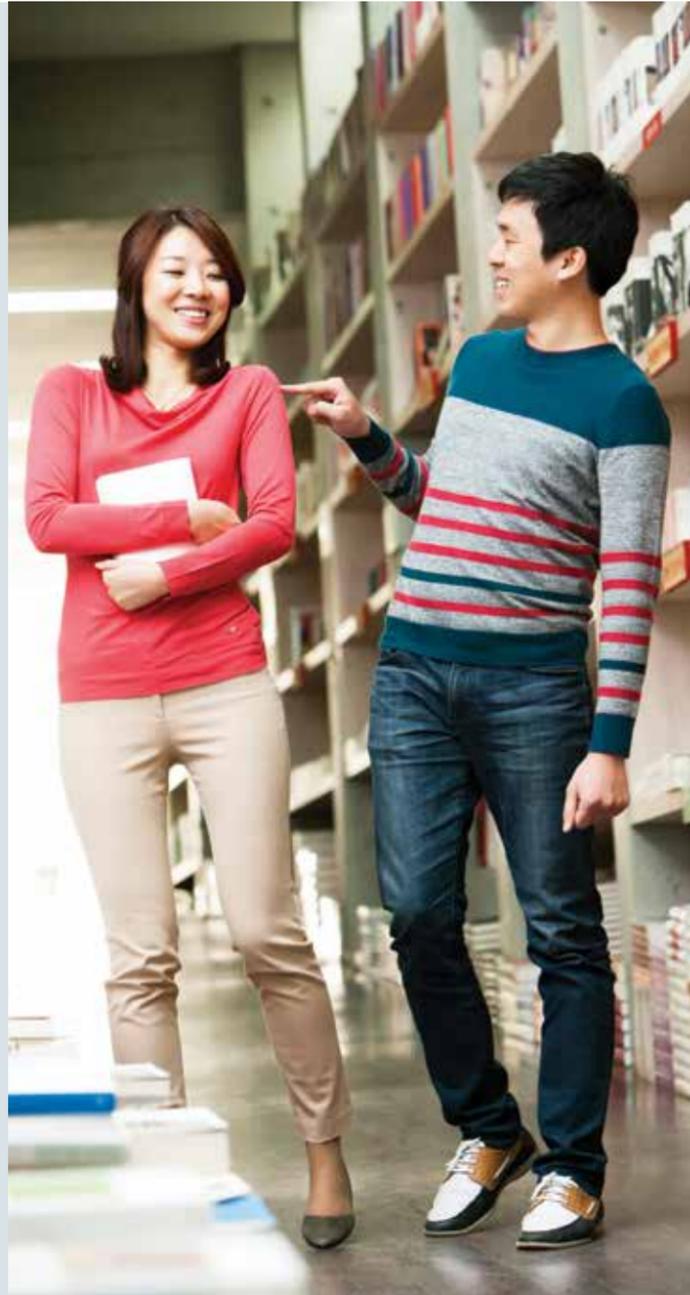
### SPACE

북하우스 Book House  
주소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범흥리  
예술마을 헤이리 1652-136  
홈페이지 <http://www.heyribookhouse.co.kr>  
문의 031-949-9303



세플러의 두 남녀가 도착한 곳은 헤이리 예술마을 가운데에서도 책의 숲이라 불리는 '북하우스'. 평일 오후의 헤이리는 이곳만의 매력을 조용히 음미해보기에 좋았다.





같은 '세플러인'이라는 자부심과 공감대 위에서 두 사람만의 즐거운 수다는 계속 이어졌다.

시 취미가 비슷하고 대화가 잘 맞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연애할 때 상대가 지루하지 않도록 늘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편이라며 자신의 매력을 어필(?)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세플러 커플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다.

**'세플러인'이라는 자부심과 공감대 위에서**

동력장치섹터에서 근무 중인 이겨레 사원은 전동기나 기어박스 등 동력장치에 적용되는 베어링 개발 및 추천을 담당하고 있다. 베어링 사용 고객들의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며 고객들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나가는 이겨레 사원. 그는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며 뛰어난 품질의 세플러 베어링을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객들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그들의 요구에 항시 귀를 기울이며 신속하게 대응해나가고 있는 것. GKAM사업부의 양지은 사원 역시 고객과의 접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녀는 세플러와 현대자동차 간의 각종 이벤트 활동, 신기술 소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외 자동차 시장 조사의 다양한 마케팅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서로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고객과의 접점을 넓혀가면서 세플러 베어링의 품질을 홍보한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업무는 비슷한 점이 많다. 회사와 고객 모두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다는 의지를 불태우는 세플러 커플. 그들의 화제는 이어서 업무상의 고충으로 옮겨갔다. "예전에는 Luk Sales에만 업무가 한정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현대자동차 관련 모든 제품의 마케팅에 접근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다"는 양지은 사원. 제품에 대한 지식이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껴 개인적으로 엔지니어링 관련 용어와 지식을 따로 공부한다고 한다. 동력장치섹터 이겨레 사원도 자신 역시 급격히 변화하는 신기술 개발로 인해 관련 동향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다며 양지은 사원의 말에 공감했다. 같은 '세플러인'이라는 자부심과 공감대 위에서 두 사람만의 즐거운 수다는 계속 이어졌다.



두 사람은 자신이 관심이 가는 코너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책의 페이지를 넘겨본다.

**따로 또 같이, 여행하듯 같은 공간 속을 거닐다**

책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꿈꿔보는 자신만의 서재. 북하우스에서는 이런 꿈의 서재를 현실로 마주할 수 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한쪽 벽을 모두 차지한 책장과 그 속에 가득 들어찬形形色색의 책들. 1층에 자리 잡은 '포레스타'를 지나면 본격적인 책의 숲, '북하우스'가 시작된다. 4층 규모의 서점과 지하의 갤러리 공간까지 구석구석 둘러볼 데도 많다. 세플러 커플은 곳곳을 둘러보다 각자 자신의 관심사와 관련된 코너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책의 페이지를 넘겨봤다. 그러다 눈길이 같은 곳에 머물면 잠시 멈춰졌던 대화가 금세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따로 또 같이, 여행하듯 같은 공간 속을 거닐은 두 사람. 헤어질 무렵, 새해

소망 및 계획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자 두 사람 모두 똑같이 '부모님 여행 보내드리기'를 꼽았다. 양지은 사원은 "이번에 알프스에서 패러글라이딩도 할 계획"이라며 설레는 눈빛이다. 이겨레 사원도 이에 질세라 "올해 마라톤 하프 코스 완주와 스노보드 Level Test 검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북하우스를 나오며 이겨레 사원은 책 한 권을 양지은 사원에게 조심스레 건넸다. 그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미리 준비해 둔 것. 책의 앞 페이지엔 오늘의 만남을 기념하는 짧은 메모도 적혀있었다. 센스 넘치는 선물에 양지은 사원은 깜짝 놀라며 고맙다는 눈빛을 전했다. 헤아리에서의 어느 멋진 날, 세플러 커플의 짧았던 추억 하나가 그 한 장에 담겨있었다.

- 01 북하우스를 나오며 책 한 권을 양지은 사원에게 건네는 센스만점의 이겨레 사원.
- 02 책의 앞 페이지엔 오늘의 만남을 기념하는 짧은 메모도 잊지 않았다.



01



02

# 고마우신 부모님, 대견한 우리 아들

T/M&샤시 시스템영업1팀 한정규 사원과 그의 부모님

한풀 꺾인 것만 같던 추위가 살랑 부는 봄바람 사이로 삐죽 고개를 내밀곤 하는 초봄. 아직은 꽃샘추위가 웃갯을 여미게 하는 3월의 어느 날, 점잖으면서도 세련된 차림의 두 중년 남녀가 세플러코리아 서울사무소의 문을 두드렸다. T/M&샤시 시스템영업1팀 한정규 사원의 부모님이 아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를 방문한 것이다.



## 아들에게서 세플러인을 보다

부모님의 질문에 답변해드리는 한정규 사원의 설명에 은근히 회사 자랑이 섞이는 것에서, 그가 세플러코리아와 그의 팀에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는지 알 수 있었다. 사회생활을 세플러에서 시작했기에 회사에 대한 애착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는 한정규 사원. 특히 대기업은 대단히 보수적일 것이라는 편견을 단번에 깨부술 정도로 의사표현이 자유로운 기업문화가 아주 마음에 들었던다. 입사하기 전부터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던 클레임 업무의 틀을 잡고 정리하여 큰 성취감을 맛볼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주관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세플러의 환경 덕분이었으며 웃는다.

한 잔 차를 마시며 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부모님.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여 목표를 이뤄나가는 아들의

모습에, 어느덧 걱정은 눈 녹듯 사라지고 든든함만이 남은 눈치다.

## 사랑으로 속이 짝 찬 삼계탕

어느새 저녁식사 시간이 다가왔다. 한정규 사원이 부모님께 식사 대접을 하겠다며 앞장서 안내한 곳은 삼계탕 전문점 '토속촌'.故노무현 대통령도 자주 찾았기에 '노무현 삼계탕집'이라고도 불리는 유명한 맛집이다. 특별한 기념일이나 여름철이 다가올수록 손님이 몰려 30~40분은 기본으로 대기를 해야 비로소 먹을 수 있는 '토속촌'의 맛있는 삼계탕을, 부모님께 꼭 한번 대접해드리고 싶었던다. 에피타이저로 제공되는 인삼주를 마시며 '토속촌'의 고풍스러운 한옥 인테리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 금방 따뜻한 삼계탕 세 그릇이 나왔다.

평소 애교 있게 말을 하는 성격이 아닌 한

정규 사원도 이번만큼은 "아버지, 어머니, 많이 드세요."라며 먼저 부모님을 챙겨드린다. 아들의 마음을 다 알기에, 그리고 세플러 안에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크게 성장한 그가 대견하기에,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몇 번 토닥여주는 것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대신했다.

매일 얼굴을 보는 가족이지만 오늘따라 서로가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아마 부모님은 아들이 새삼 대견스러운 마음에 더없이 흡족하고, 한정규 사원은 부모님께서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 뿌듯해서 일 것이다. "그동안 철부지 같던 저를 챙겨주시느라 희생하셨던 부모님! 앞으로는 두분의 즐거움을 항상 최우선시 해서 매 순간을 재미나게 즐겨주세요. 이제 당당한 세플러인으로서 효도하겠습니다."

## 자랑스런 아들의 일터를 찾은 부모님

부모에게 자식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어린애 같지만 하다던가. 한정규 사원이 세플러코리아에 입사해 T/M&샤시 시스템영업1팀에서 국내 자동차 관련업계 영업을 맡은 지도 어언 3년차건만, 부모님은 여전히 걱정이 들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자랑스러움 반, 걱정 반이죠. 여기저기 살갑게 구는 성격도 아니라 사회생활 잘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아들이 일하는 사무실을 둘러보고, 세플러코리아와 제품에 관련된 자료를 들여다보며 연신 질문을 쏟아내시는 것도 당연지사다. 처음에는 부모님 앞에서 회사 이야기 하자니 어쩐지 어색했던 한정규 사원. 하지만 기아자동차, 네오오토, 대일이노텍, 서진오토모티브 영업을 담당하며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고객을 대해야하는 한정규 사원인 만큼, 곧 빠삭한 지식을 토대로 회사와 자신의 업무에 대한 소개를 한다.

## Interview +one

T/M&샤시 시스템영업1팀 한정규 사원

당연하게만 생각해왔던 부모님의 사랑에 이제야 조금씩 보답해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항상 내 말은 바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하고, 회사에서의 업무를 포함한 모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회사생활을 하는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식사 대접까지 할 수 있게 기회를 준 회사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01 부모님은 세플러코리아 직원으로서의 몫을 묵묵히 다 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자랑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는 모양이었다.

02 삼계탕이 나오자마자 꼴깍한 닭다리를 집어 먼저 아들에게 건네주시는 어머니.



# 세플러인들에게 묻는다! 기념일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2014년이 이제 시작되나 했더니, 어느새 꽃잎 흩날리는 봄바람이 불며 5월이 성큼 다가왔다. 가족들과 보낼 기념일이 많아 가정의 달이라 불리는 5월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더욱 특별하게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법. 가정의 달을 맞아, 세플러인들에게 5월에 있을 각종 기념일의 계획을 물었다.

설문대상 : 세플러코리아 전직원  
설문기간 : 2014년 3월 10일 ~ 3월 21일  
총 응답자수 : 97명



## 01

가정의 달 5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념일은?

- ① 우리 애들 기 살려주는 날! 어린이날 (18%)
- ② **어버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버이날 80%**
- ③ 스승의 은혜는 하늘같아서~ 스승의날 (2%)
- ④ 진짜 어른이 되는 날~ 성년의날 (0%)

오랜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려 신혼생활을 시작했던 것이 옛 그제 같이 느껴지는데, 벌써 몇 번의 봄이 지나고 딸 하나, 아들 하나의 아버지가 된 정가정 씨. 부모가 되고 나니 어렸을 때 이해하지 못했던 부모님의 마음을 절로 이해하게 됐다. 예전에는 단순히 휴일이 많아 좋았던 5월을, 이제는 어버이날이 있는 달로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된 것도 당연하다.



## 02

선물을 한다면  
누구에게 먼저  
하고 싶은가요?

- ① 자녀 (12%)
- ② 배우자 (24%)
- ③ **본가·친정 부모님(자신의 부모님) 60%**
- ④ 처가·시댁 부모님(배우자의 부모님) (3%)

가정의 달 5월. 어린이날 선물, 부부의날 선물보다는 아무래도 어버이날 선물을 가장 고심하게 된다. 장인, 장모님도 부모님이나 다름없지만 고향에 계신 자신의 부모님 생각을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은 정가정 씨도 어쩔 수가 없다. 오늘날 새삼 고마우신 부모님 생각이 간절해, 안부전화를 한 번 더 드려보는 정가정 씨였다.



## 03

어린이날  
선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 ① 우리 아이, 학습도 스마트하게 할 수 있도록! 전자기기 (5%)
- ② 애들은 애들이지! 장난감, 완구류 (24%)
- ③ **가정의 달답게, 가족 나들이 또는 영화·공연 관람 48%**
- ④ 어린이날만큼은 애들이 먹고 싶은 걸로~ 가족 외식 (23%)

5월 5일 어린이날! 정가정 씨 가족이 근처 공원으로 봄 소풍을 나갔다. 딸에게 자전거 타는 법도 가르쳐주고 아들과 캐치볼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해질녘 썸엔 영화관에서 신나는 애니메이션도 봤다. 하루 종일 까르르 웃으며 "아빠, 엄마 최고!"를 외치는 아이들을 보니, 정가정 씨는 아이들과 놀아주느라 피곤했던 것이 싹 가시는 기분이었다.



## 05

가족들에게  
가장 서운할 때는  
언제인가요?

- ① 가족들이 나보다 내 월급을 더 받기는 것처럼 느껴질 때 (24%)
- ② 어버이날보다 발렌타인데이를 더 챙기는 아이들을 볼 때 (5%)
- ③ 집안일 부담으로 아내(남편)와 마찰이 생길 때 (29%)
- ④ **간만에 모인 휴일에도 가족들이 각자 따로 노는 느낌이 들 때 42%**

정가정 씨도 가족들에게 서운할 때가 있다. 간만의 휴일, 가족들이 각자 따로 놓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밀린 드라마를 시청하는 아내와 친구와의 전화통화에 비빔 딸, 벌써부터 컴퓨터에 빠진 아들. 정작 자신도 소파에 늘어져있을 뿐이라 답답함을 느끼는 정가정 씨였다.



## 04

부부의 날,  
배우자에게  
선물하고 싶은 선물은?

- ① 아내(남편)의 얼굴에서 세월을 지우자! 화장품 (10%)
- ② 함께하는 취미생활을 위해~ 의류 및 아웃도어 용품 (35%)
- ③ **내 배우자를 반짝반짝 빛나게 할 액세서리 36%**
- ④ 분위기 좀 잡아볼까? 와인과 케이크 (18%)

강년기가 다가왔는지 요즘 부쩍 우울해하는 아내를 보는 정가정 씨의 마음은 항상 무거웠다. 아내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기 위해 부부의 날 선물 고르기에 만전을 기하는 정가정 씨. 선물을 고르러 백화점에 왔다가 액세서리 코너 앞에서 멈췄다. 유난히 반짝여 보이는 목걸이 하나를 포장해 재킷 안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향하는 정가정씨의 발걸음이 가벼웠다.



## 06

화목한 가정을  
히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 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대로만! 식구들의 건강 (32%)
- ② 아무래도 좀 풍족해야... 경제적 여유 (19%)
- ③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 대화 41%**
- ④ 우리는 한 핏줄이니까! 신뢰와 의리 (8%)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은 정가정씨.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고 부엌에서 과일과 과도를 가져와 깎기 시작했다. 그의 서툰 솜씨가 못내 신경 쓰인 아내가 과도를 뺏아들며 옆에 앉았고, 과일 먹으러 오라는 소리에 아이들도 거실에 모였다. 자연스럽게 시작된 대화는 하하호호 웃음소리와 함께 끊어지지 않았고, 정가정 씨는 행복감에 가슴이 뚫어질 듯 따뜻해짐을 느꼈다.

# 당신의 지친 발에 달콤한 휴식을 선물하는 날

안산공장 생일자를 위한 생일 선물



참여자 (왼쪽부터) 안산공장 생산팀 성기찬 사원 (1월 5일), 안산공장 생산팀 이미애 사원 (12월 17일), 안산공장 설비보전팀 박유호 사원 (2월 14일), 안산공장 생산팀 이영훈 세터 (1월 23일), 안산공장 생산팀 황성필 사원 (2월 18일)

하루 종일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어깨와 팔, 다리 등 아프지 않은 데가 없는 듯하다. 특히 엄청난 양의 압력을 받기 마련인 발은 더욱 그럴 터. 세플러인들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리하여 마련된 이색적인 생일선물, 발 마사지! 이제 당신의 지친 발에도 힐링을 선물해 보자.



입욕제가 풀어진 따뜻한 물 속에 발을 담그자, 포근한 온기에 벌써 피로가 풀리는 듯 편안한 표정의 세플러인들. 오랜만의 여유에 다들 즐거운 기분으로 휴식을 즐겼다.

## 발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건강의 시작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린다. 그만큼 발이 우리 신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온몸의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로 신체기관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발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곧 몸의 피로를 푸는 것과 같다. 하지만 몸의 중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데다 하루 종일 답답한 신발 속에 꼭꼭 숨겨진 발은 늘 건강관리에서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다. 중요한 만큼 신경을 많이 쓰지는 못하는 우리 몸의 일부, 발. 생일을 맞은 다섯 명의 세플러인들이 특별히 오늘날만큼 자신들의 지친 발에 달콤한 휴식을 선사하기로 했다.

안산공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편안한 분위기의 마사지숍. 생일을 맞이한 다섯 명의 세플러인들이 이곳에 들러 발 마사지를 받기로 했다. 마사지를 받기 전 먼저 탈의실에서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족욕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줬다. 입욕제가 풀어진 따뜻한 물 속에 발을 담그자, 포근한 온기에 벌써 피로가 풀리는 듯 편안한 표정의 세플러인들. 오랜만의 여유에 다들 즐거운 기분으로 혼자만의 휴식을 즐기기도 하고, 옆의 동료와 미처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두런두런 풀어놓기도 했다.



## 가장 기억에 남는 생일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껏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생일이 언제였는지 묻자 세플러인들은 고개를 가우뚱하며 처음엔 “글쎄요”라고 웃으며 답했다. 그러다 각자 기억을 더듬어가더니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들을 뽑아냈다. 이미에 사원은 “딸이 만들어준 맛있는 콩나물 잡채를 먹었던 마흔 살 생일 때”라고 답변했으며, 같은 팀의 성기찬 사원과 설비보전팀 박유호 사원은 오래 전 군 생활 당시의 생일을 꼽기도 했다. 이어서 이영훈 세터가 “바로 작년”이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제 생애 첫 차를 선물로 받았거든요. 너무 큰 선물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생일 당일에는 사실 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생일이 되니 미역국도 못 얻어먹고 출근하고 있더라고요. 살짝 서운할 뻔했는데, 퇴근 후 사위하고 나오니까 가족들이 깜짝 생일파티를 준비해놨던 군요. 어찌나 사람을 들었다 놔다 하던지... 제 생애 가장 럭셔리하면서도 즐거웠던 생일 추억입니다.” 끝으로 황성필 사원은 “아직까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생일이 없는 것 같다”며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지난 생일의 모든 기억들 위로 오늘의 이색체험이 세플러인들에게 특별한 추억으로 남길 바란다.

## 세플러 가족 분들 모두 건강하세요!

가벼운 마음으로 마사지사움을 찾았지만 막상 맨발을 드러내려니 웬지 모르게 쑥스러웠던 생일자들. 하지만 마사지가 시작되자 처음에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거나 “해외여행 때만 받아봤다”며 낯설어하던 생일자들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만면에 웃음을 머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픔은 시원함으로 변해가고 몸의 피로도 풀어져갔다. 마사지를 해주시는 원장님께서서는 “평소에 꾸준히 발 마사지를 해주면 혈액순환을 돕고 노폐물 배출을 촉진시켜 전신의 긴장을 풀어준다”며, “집에서도 자주 발을 마사지해주는 것이 좋고, 냉수와 온수를 번갈아 반복하는 냉온 족욕은 혈액순환에 효과만점”이라는 깨알 같은 건강 팁(Tip)을 전수해주셨다.

마사지가 끝나갈 무렵, 다섯 명의 세플러인들은 한결 더 편안한 모습으로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오늘은 특별히 오후 근무도 일찌감치 마무리하고 왔던지라 발 마사지 체험은 일상 속 작은 일탈이자 휴식이 되었을 터. 끝으로 올해 새해 소망과 계획 이야기가 나오자 이구동성 “가족 모두의 건강”과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꼽는다. 소박한 그들의 새해 소망과 꿈들이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

마사지가 끝나갈 무렵, 세플러인들은 한결 더 편안한 모습으로 미처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두런두런 풀어놓았다.



## Interview +one

안산공장 생산팀 이미에 사원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다 보니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은 솔직히 내기 어려웠어요. 이렇게 발 마사지를 받는 것도 처음이고요. 누군가에게 저의 발을 맡긴다는 것이 처음엔 좀 어색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했는데, 막상 받아보니 편안하고 좋은 느낌이었어요. 앞으로는 조금 더 자주 저를 위한 시간을 가져볼 생각이예요. 세플러인 여러분도 바쁜 일상 속에서 조금 더 여유를 갖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 For Life 이 한장의 그림

● 춘곤증을 이기기 위한 그림



신종식 作 / 여행(A Journey, Voyage) / Acrylic on canvas / 2010

간결하면서도 명쾌한 선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가운데 차가운 색과 따뜻한 색이 교차되며 활동적인 느낌을 전달한다. 차가운 색 계열인 파랑은 마음이 산만할 때 집중력과 명료한 의식을 가져다주고 행동을 이성적으로 제어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동시에 따뜻한 계열인 주황과 노랑은 활력을 유도해 춘곤증과 봄의 나른함을 이기도록 한다.

전시소식 \_ 신종식 개인전

전시제목 <잊혀지지 않는 도시, Unforgotten City>

전시일정 2014. 4. 16(수) - 5. 27(화)

전시장소 강남구 테헤란로 KDB대우증권 WMC 역삼역 아트스페이스

개관시간 월요일 - 금요일(AM 11:00 - PM 05:00)

# 소나무향 실은 봄바람 불어오던 날의 가족 캠핑

중부물류센터 반구섭 주임 가족



3월, 땅 속에서 잠자던 개구리들이 봄 냄새 맡고 하나들 잠을 깨는 경칩이 지났다. 캠핑족들도 겨울 동안 잠재워 놓았던 캠핑 장비를 꺼내어 캠핑장으로 모여드는 계절. 반구섭 주임 가족도 예외는 아니다. 반구섭 주임 가족이 소나무 가득한 솔들 캠핑장에서 물씬 풍기는 봄 내음을 맡으며 즐긴 봄맞이 캠핑에 함께 따라가보자.



## 바쁜 일상에서 나무그늘처럼 힐링이 되어주는 가족

불어오는 봄바람에 캠핑 장비를 꺼내두고 나선 오늘의 주인공은 SCM&구매사업부 물류팀 중부물류센터 반구섭 주임. 전국 각지의 공장과 독일에서 들어오는 생산입고품, FAG수입베어링이 정확한 종류, 수량인지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출고제품을 최종 검수하는 일을 맡고 있다. 아침 7시부터 시작되는 업무가 끝나면 어느새 저녁 8~9시. 직원들 사이에서 “집은 잠만 자고 나오는 하숙집”이라는 농담이 나올 정도로, 매일매일 복잡하고 정신없는 하루를 보낸다. 그러나 그에게는 가족들이 있기에 항상 힘을 낼 수 있다. 나무그늘처럼 아늑한 쉼터가 되어주는 아내 김경희씨와 딸 채영이, 소정



“우리도 도와줄래요” 자기 키만 한 풀대를 조립하겠다며 두 팔 걸어붙이고 나선 채영이와 소정.

이. 반구섭 주임은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족 캠핑을 떠나 소중한 가족들에게 함께하는 행복을 안겨주려 한단다.

## 사계절이 푸른 솔들 캠핑에서의 봄 캠핑

반구섭 주임이 선택한 봄맞이 캠핑 장소는 양평에 위치한 솔들 캠핑장. 캠퍼들 사이에서 시설이 좋기로 정평이 나았는데도 예약 없이 선착순으로만 운영되는 곳이기에, 사이트 차지 경쟁이 치열하다. 재작년 여름 무작정 캠핑을 떠났다가 사이트가 하나도 남지 않은 탓에 길가 어느 모텔에서 하룻밤을 묵었던 반구섭 주임 가족들은 그 치열한 경쟁에 쉽사리 도전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오늘날만큼은 행운이 따랐는지, 사이트 경쟁을 겪지 않고도 양지바른 옆들 사이트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01

**우리 가족 캠핑 노하우, 완벽한 역할분담!**

반구섭 주임 가족이 처음 캠핑을 시작한 것은 2년 전. 아직 초보 캠퍼라 장비도 부족하고 배울 것도 많지만, 이런 부족함은 이들의 완벽한 역할분담이 채워준다. 캠핑 준비과정에서부터 시작되는 반구섭 주임 가족의 역할분담. 우선 경희 씨가 필요한 장비를 말하면, 반구섭 주임이 발품을 팔아 알맞은 제품을 찾아내어 구입한다. 캠핑장에 도착하면 텐트 등 장비의 조립을 총괄 지휘하는 것은 경희 씨의 몫. 채영이도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텐트 폴대를 착착 조립하고, 엄마, 아빠의 도움을 받아 직접 설치까지 한다. 언니가 하는 것은 뭐든지 다 따라하고 싶은 소정이가까지 두 팔 걷고 나서니, 반구섭 주임 가족의 캠핑 노하우를 '역할분담'이라는 단어로 정의 내려도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팔볼출 아빠의 끔찍한 가족사랑**

일요일마다 조기축구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던 반구섭 주임은 같은 축구회 회원으로부터 아내 경희 씨를 소개받았다. 그렇게 연이 닿아, 퇴짜를 맞아도 굴하지 않는 계속된 구애 끝에 경희 씨와의 결혼에 골인했다. 느릿한 강원도 남자와 당찬 경상도 여자의 만남이라 다투기도 참 많이 다뤘다고. 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도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금슬 좋은 부부다. 이렇게나 사랑하는 아내와의 결혼생활에서 느즈막히 얻은 딸들이니, 반구섭 주임이 채영이와 소정이에게 '울인'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지사. 오죽하면 7살 채영이와 연년생 동생 소정이는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인 줄 안단다. 사달라고 조르는 것은 무엇이든 다 사주기 때문이다. 아빠

의 이런 끔찍한 내리사랑 덕분에, 채영이와 소정이는 누구보다도 활발하고 씩씩하게 자라나고 있다.

반구섭 주임이 이번 캠핑에서 가족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이벤트가 있었다. 바로 '나무 심기'. 처음 해보는 나무 심기에, 채영이와 소정이는 각자 물조리개와 모종삽을 들고 신이 나서 어쩔 줄을 몰랐다. 반구섭 주임이 묘목으로 준비한 '행운목'은 언뜻 보면 성장이 멈춘 것 같이 보이지만 어느 순간 싹이 나고 가는 뿌리가 돋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게 느리게, 그러나 크게 성장하는 이 나무처럼 채영이와 소정이도,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도 점점 커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반구섭 주임의 바람이다.



02



아이들이 자연과 어울려 뛰노는 동안 반구섭 주임과 아내 경희 씨는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즐긴다.

- 01 엄마의 요리 과정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는 채영이.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 02 역할분담이 확실한 가족이니랄까봐, 두 자매가 손발이 척척 맞는다.
- 03 나무가 다칠세라 조심조심 흙으로 옮기는 소정이. 두 아이가 좋아하는 모습에 반구섭 주임의 마음도 흐뭇하다.



03

# 봄날의 커피를 좋아하세요?

안산공장 생산팀 정상호 사원의 핸드드립 체험기

바야흐로 커피 춘추전국시대. 커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커피 전문점이 한 집 건너 한 집으로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그만큼 커피가 패스트푸드화된 것도 현실. 핸드드립으로 느낌의 미학을 찾고 커피향 가득한 휴식을 즐기기 위하여, 정상호 사원이 핸드드립 커피 교실 문을 두드렸다.

## 마시는 것을 넘어 커피를 '느낄' 수 있는 곳

커피는 단순히 잠을 깨우거나 식사 후 입가심을 하기 위해 마시는 음료에서 벗어나 현대 문화 아이콘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사람들의 입맛은 '다방커피'에만 머물러있지 않고, 그들에겐 더 이상 '에스프레소'나 '아메리카노'니 하는 이름이 낯설지 않다. 이에 따라 카페 문화가 발전하면서 전국에는 커피 전문점 체인만 4,500여 개가 생겼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카페 중에서 커피의 진정한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 위치한 'TUFF ENUFF'는 커피의 맛과 멋을 동시에, 그것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흔치 않은 곳이다. 우수한 원두를 사용하여 커피 본연의 맛을 추구하는 로스팅 전문 카페이기도 하고, 대표가 직접 구상한 인테리어와 소품들이 예술적인 분위기까지 자아내기 때문이다. 커피가 주는 풍요로움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핸드드립 커피 교실도 운영하고 있는 이곳에, 안산공장 생산팀 정상호 사원이 방문했다.

## 커피의 향에 취하다

TUFF ENUFF의 점장에게 직접 핸드드립을 전수받게 된 정상호 사원. 커피를 좋아하긴 하지만 핸드드립은 처음이기에, 과학 실험도구를 연상시키는 핸드드립 전용 도구와 원두에 대해 설명하는 점장의 말에 열심히 귀를 기울인다. 정상호 사원이 다루게 된 원두는 '탄자니아'. 제일 먼저 핸드밀에 원두를 넣고 일정한 힘을 주어 시계방향으로 갈았다. 원두가루를 담은 필터를 드리퍼에 올리고 나면 이제 뜬을 들일 차례. 85° 정도의 물을 원두 위에 빠르게 세 바퀴 정도 돌리며 부으니, 탄산가스가 생기면서 물과 같이 빠져나가며 원두가루가 조금 부풀어 오른다. 이때 원두와 물이 만나며 올라오는 향이 바로 원두의 아로마 향. 향긋한 커피 향을 맡고 있자니 마치 탄자니아 커피 농장에 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며 웃는 정상호 사원이었다.

## 업무에 임할 때의 섬세함을 살려 커피를 내리다

뜸 들이기가 끝나고, 일정한 물줄기가 일정한 속도로 나올 수 있도록 드리프트를 돌려가며 조심스레 커피를 추출하는 정상호 사원의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 안산공장 생



핸드드립은 원두의 향, 원두를 가는 소리, 추출된 커피의 맛과 전 과정의 향긋한 분위기를 통틀어 즐기는 맛이 있다.

산팀에서 TSTM 코팅 장비를 가동시키는 업무를 맡고 있는 정상호 사원. 세플러코리아가 제품의 우수성 면에서 명실상부 최고의 기업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 만큼, 그 명성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업무에 임할 때 세심함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한 노력을 증명이라도 하듯, 미리 예열해놓은 서버에 커피를 내리는 손길이 섬세하기 이를 데 없다.

잔미가 생기지 않도록 250~300ml 정도로 적절히 수위를 조절하여 추출을 끝내고 나면 드디어 한두 잔 분량의 커피가 완성된다. 느긋하게 향을 맡고 원두의 상태를 살펴가며 천천히 커피를 내리는 핸드드립이 마치 다도(茶道)와 같이 느껴졌다는 정상호 사원. 평소 3교대 근무로 정신없이 바쁜 회사생활을 하면서 여유로움을 느낄 새가 별로 없었는데 간만에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었다. 혀로 느끼는 커피의 맛뿐만 아니라 그 분위기와 후각적인 맛 역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정상호 사원이 세플러인들에게 봄날의 커피 한 잔을 권했다.



## Interview +one

안산공장 생산팀 정상호 사원

평소 커피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일하는 짬 짬이 인스턴트커피나 즐기는 정도였습니다. 뭘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배워야한다는 생각으로 커피 교실을 찾았는데 커피에서 느낌의 미학을 발견하고 가는 계기가 되었네요. 세플러인 여러분도 핸드드립 커피가 주는 풍미와 함께 여유로운 휴식을 즐겨보는 것은 어떠세요?



# 파스타 소스를 둘러싼 두 회사의 전쟁

### 파스타의 대중화와 하워드 모스코워츠의 활약

이탈리아의 3대 수출품을 우스갯소리로 '파스타, 피자, 마피아'라고 한다. 파스타가 제일 첫 번째로 꼽히는 만큼 전 세계 어디에서나 사랑받는 파스타. 지금은 레스토랑은 물론 가정에서도 쉽게 즐길 수 있는 파스타가, 사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음식 중의 하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파스타가 지금처럼 대중화될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파스타 소스 전쟁'이 마련했다.



### 알고 보면 까다로운 요리, 파스타

유럽에는 면 요리가 존재하지 않는데 유독 이탈리아에만 면 요리인 파스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파스타의 기원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14세기 마르코 폴로가 중국의 국수를 이탈리아에 가져와 그것이 파스타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기원전 5000년경부터 이탈리아 남쪽 해안에 살던 어느 민족이 여러 가지 모양의 파스타를 만들어 먹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어찌 됐건 파스타는 만들기에 여간 까다로운 음식이 아니었다. 일단 밀가루를 반죽하는 데 품이 많이 들었고, 자연 건조 역시 오래 걸렸다. 일상적인 음식이라기보다는 작정하고 만들어야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파스타는 건조 파스타면을 만드는 기술이 발전한 17세기가 되고 나서야 유럽 및 미국으로 전파될 수 있었다. 19세기 말 이탈리아인들의 미국 이민이 급증하면서 파스타는 더욱 널리 알려졌지만, 소스 제조의 문제 때문에 20세기 중반까지도 단순히 이국적인 요리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 미개척시장에서의 파스타 소스 전쟁

20세기 중반, 드디어 파스타 대중화의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생활용품업체 유니레버와 캠벨의 '파스타 소스 전쟁'이 벌어진 것. 그 중심에는 컨설턴트 하워드 모스코워츠가 있었다.

1970년대, 캠벨에서 하워드 모스코워츠를 고용했다. 유니레버가 '라구'라는 브랜드로 파스타 소스를 대량생산하면서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시장을 먼저 개척해놓은 상황이었다. 뒤늦게 캠벨에서도 파스타 소스 브랜드 '프레고'를 출시했지만 '라구'를 따라잡기는 힘들었다. 컨설팅에 앞서, 하워드 모스코워츠는 캠벨의 요리사들에게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소스를 만들라고 주문했다. 그는 45개의 완성된 소스를 가지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시작했다. 테스트 결과 한 집단은 단조로운 맛의 소스를, 한 집단은 강한 양념의 소스를, 한 집단은 토마토가 덩어리진 진득한 소스를 선호함을 알게 되었다. 캠벨은 서둘러 단조로운 맛과 강한 양념 맛 두 가지 소스에 과육이 덩어리진 소스를 추가하여 세 개의 제품으로 승부를 걸었다.

### 하워드 모스코워츠, 파스타 소스에 다양성을 불어넣다

새 제품을 출시한 이후, 캠벨은 10년 동안 60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벌어들였다. 당황한 유니레버는 캠벨과 똑같이 하워드 모스코워츠를 고용했다. 하워드는 이번엔 치즈 맛, 담백한 맛, 기름진 맛, 전통적인 맛 등 여섯 가지 기준을 세워 최대한 많은 종류의 파스타 소스를 출시하라고 제안했다. 유니레버는 하워드의 컨설팅에 따라 36개의 소스를 출시했고, 다시 캠벨을 따라잡을 수 있게 되었다. 두 회사가 불을 붙이고 하워드가 양쪽에서 용병으로 활약한 이 파스타 소스 전쟁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맛의 경계를 허무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두 회사가 많은 종류의 소스를 대량생산하게 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은 건조 파스타면과 공장에서 나온 파스타 소스를 가지고 집에서도 간단히 파스타를 맛볼 수 있게 되었고, 파스타는 곧 대중화에 가속을 붙이게 되었다.



### 파스타의 대중화를 이끈 다양성의 가치

현재 파스타는 파스타 소스의 '다품종 대량생산'을 업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 있다. 심지어 이탈리아에서 한참 멀리 떨어진 우리나라에서도 정통 이탈리아 파스타 레스토랑을 찾기가 힘들지 않으며, 젊은이들의 소개팅 대표 메뉴로 파스타가 꼽히기도 한다. 김치나 고추장과의 융합을 통해 우리 입맛에 맞는 퓨전 파스타가 탄생하기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파스타를 접할 수 있는 시작점은 유니레버와 캠벨의 파스타 소스 전쟁에 있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전술'의 실행에 있어서는 하워드 모스코워츠의 활약이 컸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조사하여 파스타 소스에 다양성의 가치를 불어넣은 하워드 모스코워츠야말로, 파스타가 대중화되는 데에 큰 획을 그은 위인이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함께한 1박 2일의 감동이 잔잔한 여운으로 물밀 듯 밀려옵니다. 다 같이 상기된 얼굴로 약속했습니다. 잘 살자고...



## 지리산 천왕봉에서의 1박 2일

문득 5년 전 회사 동료들과 다녀온 1박 2일의 시간들이 떠올라 글로 다시 끄집어내봅니다. 해발 1,915m를 자랑하는 지리산 천왕봉은 섬에 있는 한라산을 제외하면 남한 땅에선 제일 높은 산입니다. 오르는 것이 꽤나 어려운 천왕봉을 목적지로 택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 각자 개인의 삶을 공동체에 투영함으로써 게을러지지 말자고 서로에게 약속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룻밤을 보내고자 베이스캠프로 선택한 곳은 장터목 대피소입니다. 계획한 일정으로는 예약을 실패했고, 그로부터 2주 후인 2월 28일~3월 1일로 어렵게 예약에 성공했습니다. 코스는 백무동 코스입니다. 입산 통제구간을 빼면 가장 무난한 코스라 생각해서 택했습니다.

여행 당일 오전 9시, 커다란 배낭을 하나씩 둘러메고 모이는 폼에 자못 긴장감이 어립니다. 전주를 출발한 지 2시간이 못되어 백무동 주차장에 도착을 했네요. 점심으로 준비한 김밥과 막걸리를 맛나게 먹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막걸리 잔입니다. 맹호 형님이 조롱박을 반으로 자르고 배낭에 매달 수 있게 만들어주셨죠. 덕분에 막걸리가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목표 산행시간은 넉넉잡아 5시간. 뽕뽕한 배낭을 메고 보니 걸모습은 전문 산악인 부럽지 않았지만 산행 시작 몇 분 만에 체력이 들통 났습니다. 숨소리는 혁혁대다 못해 목까지 찻니다. 발걸음은 무거워져 자꾸 주저앉습니다. 그래도 전진합니다. 나름 이번 산행에 대비해 건지산으로,

모악산으로, 황방산으로 전지훈련도 갔으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느덧 눈과 얼음으로 덮인 길이 보이는 것을 보니 꽤나 올라왔나 봅니다. 아이젠을 착용한 다음 얼굴 가득 맺힌 땀방울을 닦고 다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렇게 4시간여의 산행 끝에 1차 목적지인 장터목 대피소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장터목 대피소는 지리산 천왕봉과 가장 가까운 대피소로 해발 1,750m에 위치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곳에 장이 섰다고 해서 이름도 장터목이랍니다. 숙소에 도착해 곧바로 저녁식사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뿔싸. 제가 소금을 챙기지 않은 관계로 김치찌개가 영 맛이 나질 않네요. 이것저것 넣어도 보고, 끝내는 모든 음식의 필살기라는 라면스프까지 동원하여 간을 맞춰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 순간 간단하고 명쾌하게 준수 형님이 해결해주십니다. 주저 없이 옆 사람에게 소금을 빌려온 것입니다. 인생사 길이 막히면 그 길을 열어줄 답은 사람에게 있다는 진리를 새삼 깨닫습니다.

어렵게 강행한 인생 중후반의 지리산 산행이었기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녁식사를 끝낸 후 감사의 마음을 담은 엽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저마다 보내는 대상은 다르지만 그 마음만은 하나였으리라 감히 짐작합니다. 이어 나를 돌아보고 이후에 진행될 나의 삶에 대해서 약속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글로 써서 예쁜 타임캡슐에 담아 지리산 품속에 잠시 맡겨두기로 했습니다. 그 타임캡슐은 장형님이신 성호 형님 정년 즈음해서 다시 열기로 정했으니, 그때까지 제석봉 언저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존경의 마음, 그리고 무수히 많은 별들과 함께, 지리산에서 첫날밤은 깊어만 갑니다.

다음날 새벽 5시 20분, 전체 기상을 완료하고 파이팅을 외친 후 드디어 천왕봉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제석봉을 넘어 통천문을 통과하니 정상이 바로 눈앞입니다. 어느새 하늘도 별것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칼바람을 맞으며 장엄하게 떠오를 해님을 기다립니다. 웅성거림과 함께 드디어 빨간 불덩이가 솟아오릅니다. 저 넓은 능선 구비마다 민족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지리산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 길지 않은 해돋이 시간 동안 소원도 빌고 서로의 모습을 사진에 담느라 바쁩니다.

1박 2일 내내 행복했음은 함께한 모든 이들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누가 내게 최고의 여행지로 어디를 뽑겠냐고 물어보면, 단연코 회사 동료들과 함께한 지리산 천왕봉 산행이라고 못 박을 것입니다.



01



02

- 01 맹호 형님이 만들어주신 최고의 잔으로 안전 산행을 기원합니다.
- 02 천왕봉 정상에서 바라보는 해넘이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 03 오래오래 기억하고픈 마음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03



# 부부가 되어 함께 첫 걸음을 내딛던 특별한 그날

2013년 10월 19일 결혼을 한 저희 부부의 신혼 여행지는 빅애플이라 불리는 뉴욕이었어요. 함께 하는 첫 여행이니만큼 둘이 몇 개월 전부터 결혼 식보다도 더 기대하면서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저는 대학시절 친구들과 여행사 패키지를 통해 뉴욕에 가본 적이 있지만, 남편과 함께 도착한 뉴욕은 또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도 편하고, 설레기도 했죠. 신기한 것은 옆에 있는 남편까지도 새롭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남자친구가 아닌 남편으로서 제 옆에 있다는 점이 크게 느껴졌던 순간이었어요.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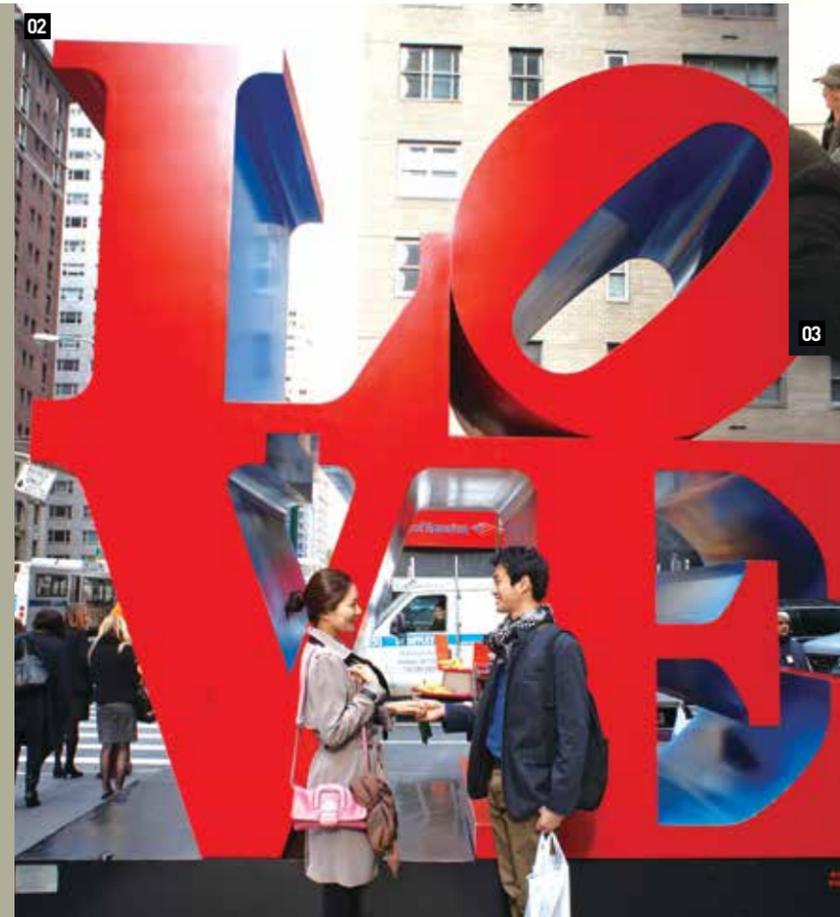
뉴욕에 도착한 첫날은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시차적응이 이렇게 힘들 줄은 둘 다 몰랐거든요. 뉴욕에 해가 뜨고 지는 것과는 다르게, 저희의 몸은 아직 우리나라 시간에 맞춰져있는 바람에 첫날은 잠만 잤던 것 같아요. 실컷 자고 일어나서 처음 들렀던 곳은 록펠러센터 전망대! 록펠러센터에서 내려다본 맨해튼의 야경은 화려한 조명과 높은 빌딩 때문에 별빛으로 수놓은 듯한 풍경이었고, 남편과 저는 예쁜 풍경을 조금이라도 더 눈과 마음속에 담아두려고 꽤 오랜 시간을 전망대에 머물렀어요. 저희를 포함하여 전망대 'Top of the Rock'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은 모두 흥분되고 들뜬 표정이었어요. 록펠러센터에 있는 스케이트장에 들러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커플 사진도 남겼어요. 커다란 트리가 장식되어 제일 화려하고 예쁜 크리스마스 시즌의 록펠러센터 스케이트장을 보지 못하는 것은 조금 아쉬

웠지만, 일상을 벗어나 새로운 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설레고 재미있었어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죠. 여행에서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바로 먹거리라고 생각하는 저희라서 맛집으로 알려진 곳은 꼭 시간을 내서 찾아갔어요. 가장 먹고 싶었던 음식은 첼시마켓에서 유명한 바닷가재였어요. 통통한 바닷가재가 입안에서 툭툭 씹히는 것이, 계속 먹고 싶을 만큼 맛있었어요. 바닷가재 안에 있는 고소한 내장까지 남김없이 맛있게 먹었더니 옆에서 저희를 한참 쳐다보던 프랑스인들도 따라서 내장까지 먹어보더라고요. 맛있으며 깨끗하게 씹서 굵어먹는 모습을 보고 남편과 저는 괜히 뿌듯했어요. 앓을 자리가 없어 서서 먹으면서도 바닷가재를 가운데 놓고 깔깔거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뉴욕 가시는 분들은 첼시마켓에 들러서 통통한 바닷가재를 꼭 드셔보세요.

미술과 패션에 관심이 많은 저에게 뉴욕은 최고의 신혼여행지였어요. 구겐하임과 뉴욕 현대미술관(MOMA)에 들러 여러 미술품도 구경하고, 패션 거리로 알려진 소호에서 패션 트렌드도 파악하고, 여유롭게 뉴욕의 거리를 활보하다가 뉴욕에 가면 꼭 맛봐야한다고 잘 알려진 수제 버거와 컵케이크도 먹으면서 뉴욕의 일상을 경험했어요. 처음 며칠이 어리둥절한 기분이었다면, 며칠 후에는 저희의 일상을 뉴욕으로 옮겨온 듯한 느낌이 들어서 한결 여유로워졌던 것 같아요. 여행 중간에는 메가버스를 타고 보스턴에 다녀왔어요. 교통수단을 타고서도 잠을 잘자는 저희 부부라서 5시간 동안 지겨운 줄 모르고 자다 보니 금방 보스턴에 도착한 느낌이었어요. 남편 친구가 보스턴에 살고 있는 덕분에 편안하게 차를 타고 보스턴을 둘러본 후, 저녁에는 MIT와 하버드 대학교의

내부를 살살이 구경했어요. 미국의 대학교를 자세히 보고 미국 대학생들의 문화를 접해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미국생활에 깊숙하게 들어간 기분이 들어 설레고 재미있었어요. 뉴욕으로 다시 돌아온 신혼여행 마지막 밤, 정말 보고 싶던 뮤지컬 <라이언킹>을 봤어요. 마지막 밤이라는 것은 아쉬웠지만, 마지막 날을 <라이언킹>으로 마무리한다는 점이 만족스러웠어요. 또한 남편을 따라 지치지 않고 열심히 걷고, 뛰었던 제 자신에게도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었어요. 평소에 열심히 걸어 다니면서 체력을 보충해두었던 것이 신혼여행에서 이렇게 빛을 발할 줄은 몰랐으니까요. 뉴욕은 정말 볼거리도 많고, 바쁜 도시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가운데에서 여유롭게

구경하고 즐기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부분이 뉴욕 여행의 매력인 것 같아요. 젊음의 에너지가 느껴지고, 재미있는 요소들이 구석구석 숨어있어서 계획했던 여행 기간을 알차게 보냈네요. 신혼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아쉽기도 했지만, 즐겁게 보냈던 시간들에 감사하고 뿌듯한 마음이 더 컸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또 한 번 설레더라고요. 남편과 함께하는 앞으로의 신혼생활이 제 앞에 어떻게 펼쳐질지, 그 기대감이 점점 더 커졌기 때문이었나 봐요. 여행은 언제나 새로움이 있어서 즐겁고, 여행을 함께하는 사람과 평생 공유할 수 있는 추억을 쌓을 수 있어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뉴욕과 보스턴 여행을 더 의미 있고 즐겁게 만들어준 남편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혼여행 후기 마무리할게요.



02



03



04

- 01 거대하고, 반짝이고, 화려한 뉴욕의 야경을 둘러보느라 목이 다 아플 지경이었어요.
- 02 센트럴파크 근처 LOVE 동상 앞에서 찰칵!
- 03 미술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뉴욕으로 오세요~
- 04 엘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앞에 선 우리 남편!

# 노후 생활 설계, 재테크 말고 '몸테크'부터

##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한 건강관리 1 2 3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을 가장 실감하게 되는 시기는 50대 중후반. 은퇴시기에 접어드는 이 시기가 되면, 예전과 같지 않은 몸 때문에 어느덧 자신이 노화의 길목에 다다라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미리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할 때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터. 여기, 성공적인 노후 설계의 기본이 되는 기초 건강관리 팁을 1 2 3 키워드를 통해 소개한다.



## 1. 건강검진, 생명검진과도 같다

국내 사망원인 1위인 암은 50대 이후 급격하게 발병률이 증가한다. 특히 폐암, 간암, 위암은 사망률이 매우 높은 암으로 꼽히는데, 최근에는 대장암, 췌장암 사망률도 증가하고 있다. 암이 무서운 것은 자각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히 폐암의 경우, 초기에는 전혀 증상이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암은 더 이상 '진단이 곧 사망'을 뜻하는 질환은 아니다.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생존율과 완치율이 올라간다. 그러기 위해서 건강검진은 필수. 늦게 발견할수록 사망률이 높아지는 만큼, 건강검진은 50대 직장인들에게 그야말로 '생명검진'과도 다를 게 없다.

### 의사의 조언

암의 종류에 따라 검진 시기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30대부터는 자궁경부암 검사를, 40대부터는 위암과 유방암 검사를 2년마다 한 번씩 받는다. 50대 이상이라면 대장암 검사를 5년 마다 한 번씩 받되, 대변검사는 매년 받아야 좋다. 간암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고 가족 중에 간암 환자가 있다면 40세 이상부터 6개월마다 검진을 받아야 한다. 성별에 따라 특히 신경을 써야 하는 암도 있다. 중년 남성의 경우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면서 술, 담배를 많이 접하게 되므로 위암, 간암,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여성보다 높다. 여성의 경우에는 여성 3대 암인 유방암, 난소암, 자궁경부암에 신경 쓸 것.

## 2. 낮춰라, 혈관 속 콜레스테롤 수치

지방은 세포를 유지시키는 데 꼭 필요한 물질.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 속 지방질 중의 한 종류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50대의 30%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타난다. 실제로 삼성서울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사람들의 콜레스테롤 분포를 보면, 콜레스테롤을 주의해야 할 경계군과 환자군이 48%에 달했다. 이렇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으면 온갖 성인병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큰 병이 아니라고 여겨지기 쉬운 고지혈증이다. 고지혈증은 혈관 안 지방 수치가 높아진 것을 말하는데, 심하면 혈관이 좁아지며 동맥경화가 일어날 수도 있으므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한 후 고지혈증 수치를 낮추어야 한다.

유전적인 요인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주된 고지혈증의 원인은 비만이나 서구화된 식습관, 흡연, 운동 부족, 술을 끊을 수 있으며, 당뇨, 신장질환 등 에너지 대사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도 고지혈증이 발생할 수 있다.

### 의사의 조언

고지혈증 예방 및 완화를 위해서는 혈액 속의 지질 성분을 조절해야 하는데, 특히 유산소 운동이 좋다. 유산소 운동으로는 자전거, 수영, 경보 등이 있다. 하루 30분 이상씩 하여 일주일에 7,000kcal를 소모해야 고지혈증 완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운동의 강도를 조절하여 심박수의 40~70% 정도를 유지해야 무리가 없다.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하기를 원한다면 오메가3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섭취해주는 것도 방법이다.



## 다스려라, 혈압

50대 직장인의 15%가 겪는 질환인 고혈압은 '고요한 살인자'라고도 불린다. 고혈압은 피가 혈관 벽을 너무 세게 미는 것을 의미하는데, 고혈압을 그대로 두면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동맥 경화에 빠지고 뇌가 서서히 망가져 가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전에는 140/90 이상일 때 고혈압 판정이 내려졌으나 현재는 혈압지침이 수정되어 120/80~139/89 사이가 고혈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직전 고혈압'으로, 120/80 이하가 정상혈압으로 규정되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혈압이 위로 140, 아래로 90을 넘어가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고혈압의 원인은 나트륨 과다섭취나 과체중, 유전적 요인, 스트레스로 알려져 있다. 노화 역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다.

### 의사의 조언

고혈압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식이요법이다. 무기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잡곡밥을 즐겨먹어야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 비타민과 불포화지방을 많이 함유한 견과류는 혈압을 낮추는 데 좋지만 칼로리가 높으므로 적게 먹는다. 육류 중에서는 포화지방 덩어리인 삼겹살보다는 닭가슴살을 먹는 것이 좋고, 생선 중에서는 등푸른 생선을 먹되 콜레스테롤이 많이 든 오징어, 장어, 낙지는 피한다. 우유는 저지방우유로 하루 두 잔씩 마셨을 때 가장 효과가 좋다.

건강의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 50대에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몸 상태를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직장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서도 체중과 허리둘레, 혈압, 혈당, 혈중 콜레스테롤치 정도는 그 결과값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기억하고 일정치를 유지하도록 하면 노후의 건강관리에 아주 유리해진다. 노후 준비, 돈을 불리는 재테크보다 건강을 유지하는 '몸테크'가 더 중요하다.



# To Communicate

이 한장의 사진

- 서울시무소 T/M사시 시스템영업2팀  
김동진 사원



## 인생은 즐겁게 살아야죠~

대학시절, 학교 근처 수확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고등학생들의 질문을 받아주는 일이었는데, 게시판에 올라오는 질문이나 수업 관련 질문을 처리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일은 마음에 쏙 들었고 시간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했죠. '열심히 일한 그대, 떠나라!'라는 하늘의 뜻이었을까요? 학원장으로부터 뜻하지 않은 낭보를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학원 매출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하여 다음 달에 사이판으로 출격 예정이니 준비하고 있도록 해요~" 설레는 마음으로 날아간 사이판은 그야말로 지상낙원이었습니다. 숙소는 사이판 북부에 있었는데 객실에서도 태평양이 보여서 굉장히 아름다웠죠. 물놀이와 4륜 바이크 등을 즐기며 정신없이 놀았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무척 즐거웠던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행운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인생은 짧습니다. 하루하루를 기분 좋게! 열심히! 보내시길 바라요~

# 무거운 겨울을 털어내고 새봄을 맞이해요

## 연구소 사우들의 아동보육시설 '동보원' 청소 봉사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겨울이 오기 전에 월동준비를 하듯 봄을 맞이하는 데에는 준비가 필요한 법이다. 겨우내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닫힌 창문을 활짝 열면 어느덧 새봄이 성큼 다가와 있을 듯하다.



### 아이들의 꿈을 지켜나가는 곳, 동보원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위치한 아동보육시설 '동보원'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2년 개원하여 60여 년 동안 약 1,000여 명에 이르는 아동들의 보금자리가 되었던 곳이다. 현재 이곳에서는 영유아부터 만 20세 미만의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동 및 청소년 54명이 함께 생활하며 미래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이곳 '동보원'과 세플러코리아는 그동안 꾸준히 후원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데, 지난 2013년의 경우 생활가구 등의 물품은 물론 후원금을 전달하며 도움의 손길을 주고받았다. 이러한 인연을 계기로, 지난 3월 29일 '동보원'의 봄맞이 청소 봉사에 세플러코리아 연구소 사우 10여 명이 참여하게 되었다.

### 구석구석 묵은 때를 지우고, 웃음을 채우다

이번 청소 봉사는 아이들의 생활공간 곳곳을 쓸고 닦는 것은 물론이고 식당, 화단 등 주변 환경까지 깨끗이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우선 3명씩 조를 나누어 아이들의 공부방과 놀이공간을 쓸고 닦았다. 홍일점으로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한 조민정 사우는 금남의 공간인 여자아이들의 생활공간을 도맡아 청소하기로 했다. 각자 손걸레를 들고 바닥은 물론 창틀과 책꽂이 등 구석구석을 닦아내느라 연신 굵은 땀을 쏟아냈다. 특히 독일 출신의 Mr. Koerner 사우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 일 자체를 힘겨워하면서도 연신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청소로 임했고, 신기한 듯 말을 걸어오는 아이들에게도 서툰 한국어로 친절히 답변하며 함께 놀아주기도 했다.

이어진 식당 바닥 청소는 식탁과 의자를 치우고 바닥의 묵은 때를 지우는 일이었다. 오래 묵은 때를 지우기란 쉽지 않았지만 이마에 맺히는 땀방울만큼 조금씩 깨끗해지기 시작했고 차츰 때가 타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 밖에도 자원봉사자들이 업무를 보는 사무실 공간과 공용실 또한 외진 구석까지 깔끔히 청소했다. 실내 청소가 끝나고서는 외부시설인 놀이터 및 정원의 잡초를 제거하는 일에 참가인원 전원이 투입되었다. 마침 놀이터 한켠에 있는 벚꽃나무가 제 세상인 듯 꽃잎을 활짝 피워내고 있어, 일하는 중간중간 벚꽃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기도 했다. 모두가 일이라 생각하기보다는 즐기는 모습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멋져 보였다.

### 더 많은 이들의 관심이 이어지길 바라며

청소 봉사를 마무리하고 돌아본 '동보원'은 말끔하게 세수를 한 듯 맑아 보였다. 보다 많은 인원과 시간으로 조금 더 깨끗이 청소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지만, 앞으로 더 자주 찾아와 아이들을 위한 봉사의 시간을 가질 것을 약속하며 자리를 마쳤다. 보다 좋은 환경에서 걱정 없이 자라야 할 아이들에게 이번 봉사활동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었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하기도 했지만,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에 아쉬움을 클 수밖에 없었다. 비록 짧은 시간의 청소 봉사였지만, 이번 봉사를 계기로 더 많은 손길이 더해지길 바라며 동보원에서의 봄맞이를 갈무리했다.



## Interview +one

연구소 제품기술팀 김승준 사원

대학시절 봉사활동을 하며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는데, 오늘 이렇게 동보원에서 청소 봉사를 하게 되니 아내와의 옛 추억이 떠올라 더욱 감회가 새롭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예전 같은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야겠다고 다짐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TIP. 사회복지법인 동보원 후원안내

아동보육시설인 동보원에는 영유아 돌보기, 아동 활동보조, 청소 등의 봉사활동 및 물품 지원, 정기지원금 등의 후원활동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후원 문의 : 055-282-6336 / dongbowon@korea.com

후원금 보내실 곳(예금주 : 동보보육원)

경남은행 541-22-0134840

우체국 613083-02-009728

국민은행 667-25-0008-119

농협중앙회 807-01-009121

신입사원을 소개합니다

# 꽃망울을 터뜨리는 봄꽃처럼 새 출발을 알립니다

## 신입사원



서울사무소 T/M사시 시스템영업2팀  
사원 김지연

세플러코리아에 입사하게 된 당시를 떠올리면 아직도 설렘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간직했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며 다짐했던 만큼 점점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세플러인이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서울사무소 Business 기획팀  
사원 이시혁

세플러코리아에서 많은 선배님들께 지도를 받으며 조직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2014년에는 회사에 적응도 잘 하고 저만의 취미도 하나 새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세플러코리아의 유능한 Follower가 되기 위하여, 아자아자 파이팅!



서울사무소 정보시스템팀  
사원 정승균

힘든 취업의 문턱을 넘어, 사회인으로서의 새 출발을 세플러코리아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열심히 배우고 부족한 부분은 열심히 채우는 스마트한 세플러인이 되었습니다. 실무를 열심히 배우며, 부족한 어학능력 역시 키워나가겠습니다!

어느새 다가온 봄을 알리려는 듯 꽃들이 만발하고, 봄 내음 가득 실은 바람이 불어 온다. 2014년의 따뜻한 새 시작을 세플러에서 맞이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려온 사람들이 있다. 2월 3일부터 26일까지 이어진 연수를 마치고 와 다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신입사원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창원공장 업무지원팀 창원  
사원 이장선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기업인 세플러코리아에 입사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항상 주변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함께 일할 때나 힘들 때 힘이 되어주는 세플러인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회사 내에서 '홍심' 같은 존재가 될 저의 모습을 기대해주세요!



전주공장 업무지원팀 전주  
사원 이주하

세플러코리아의 가족이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재다능한 세플러인이 되기 위해 회사와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빠르게 적응하고 업무를 파악하겠습니다. 제 20대의 마지막인 2014년을 세플러코리아에서 멋지게 보내고 싶습니다.



연구소 제품기술팀  
연구원 강민욱

세계적 기업인 세플러코리아, 그 중에서도 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연구소의 일원이 되어 무척 기쁩니다. 노력하는 세플러인이 될과 동시에 세플러코리아의 분위기에 커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초심을 지키며 일하겠습니다. 세플러 신입사원 여러분, 모두 화이팅!



서울사무소 Industrial 부문  
사원 오지연

외국계 기업 취업박람회 통해 세플러코리아를 알게 되었습니다. 탄탄한 기술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플러코리아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올 한 해에는 신입사원으로서의 열정으로 제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제품 지식을 쌓을 계획입니다.



창원공장 3PU 선삭팀  
사원 권태경

먼저 부족한 저를 세플러코리아에서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열심히 잘하는 세플러인으로 성장하겠습니다. 맡은 업무를 빠르게 습득하고 자기개발도 열심히 하여 스마트하고 성실한 신입사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원공장 정보시스템팀  
사원 곽병관

베어링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우리 세플러코리아!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작은 보탬이나마 될 수 있는 인재가 되었습니다. 2014년 말의 해, 힘차게 달리는 말처럼 역동적이고 보람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소 제품기술팀  
연구원 이강현

아직은 미숙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맡은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른 팀원들과 잘 융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한 사람의 몫을 충분히 다하는 세플러인이 되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계 기업이니 만큼 외국어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연구소 제품기술팀  
연구원 김승기

저는 선배님들과 지내는 것도 Perfect 하고 업무에서도 Perfect 한, 세플러 제품 기술팀의 'PM'이 되었습니다. Project Management에서 인정받는 Perfect Man, 'PM!' 정말 입사하고 싶은 회사에 입사하게 되어 제가 어떤 일을 맡게 될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연구소 제품기술팀  
연구원 조민정

두 차례의 현장실습 중 세플러코리아의 인간적이고 즐거운 분위기에 대해 입사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바라던 곳에 입사하고 원하던 업무도 맡게 되어 참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푸릇하다 못해 푸르딩딩한 신입사원이지만 재빨리 적응하여 자연스럽게 녹아들겠습니다.

올해 더욱 발전하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거듭나겠다는 신입사원들의  
포부를 들어보자.

신입사원



창원공장 1PU 볼베어링생산2팀  
사원 김지모

제가 세플러코리아의 일원이 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선배님들께서 일구어놓으신 것만큼 해낼 수 있는, 세플러인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인재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창원공장 1PU 볼베어링생산3팀  
사원 박진혁

모두가 우러러보는 세플러코리아에 입사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선배를 공경하고 후배를 사랑하며 제가 맡은 일을 100%로 해낼 수 있는 세플러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개선행동을 통해 세팅 시간을 조금 더 줄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창원공장 1PU 볼베어링생산3팀  
사원 김성욱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세플러코리아라는 글로벌 기업에 입사하여 세플러 가족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무결점의 베어링을 생산하는 최고의 세플러인이 되겠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베어링 연삭 가공 설비의 셋업 기술 및 연삭 가공 기술을 좀 더 심도 있게 습득하고 싶습니다.



창원공장 2PU 테이퍼베어링처리팀  
사원 임대현

정규직이 된 지 6개월가량이 지났습니다. 아직 미숙한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벽치고 정신없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을 뛰어넘기 위해 끊임 없이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창원공장 2PU 테이퍼베어링생산팀  
사원 김철호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쁘고 좋습니다. 바쁜 상황에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세플러인이 되겠습니다. 일은 일대로, 취미생활은 취미생활대로 둘 다 열심히 즐길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원공장 1PU 볼베어링처리팀  
사원 이선호

세계적인 기업 세플러코리아에 입사하게 되어 참으로 영광입니다. 품질 향상뿐만 아니라 성능가동률, 시간가동률을 높이는 야무진 사원이 되겠습니다. 주위에서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창원공장 2PU 테이퍼베어링생산팀  
사원 조영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베어링 생산업체의 일원이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정직하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세플러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업무적으로 노력해지고 성숙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창원공장 2PU 테이퍼베어링생산팀  
사원 박현일

정식으로 세플러의 일원이 되니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생깁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네요. 첫 출근날의 그 마음을 잊지 않으며, 모르는 것은 물어보고 항상 규칙과 규율을 지키는 세플러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항상 소통하기 위해 열린 자세를 가지려 합니다.



창원공장 유틸리티운영팀  
사원 최진성

노력에 비해 좋은 직장에 입사한 것 같아 기분이 좋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기회를 준 회사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입사했을 때의 초심을 항상 잃지 않겠습니다. 2014년, 소통하는 세플러인이 되어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웃으며 해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밝힌 포부를 바탕으로 누구보다 앞서나가는 세플러인이 되기를 바란다.

신입사원



창원공장 1PU 설비보전팀 사원 김푸름

좋은 회사에서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올해는 전기 산업기사 자격증을 준비하여 다른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자신의 이득보다는 회사 전체의 발전을 위해 일할 줄 아는 세플러인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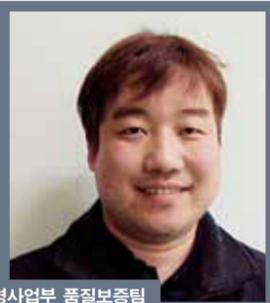
창원공장 6PU 설비보전팀 사원 임종철

세플러코리아와 함께 인생의 제2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의 기뻐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세플러코리아에서의 한 시간 한 시간을 차곡차곡 쌓아 여러 선배님들처럼 전문가가 되기 위해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창원공장 6PU 설비보전팀 사원 김정훈

'정상까지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속도로 걸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도 있지만, 기본을 중시하고 기본을 행하는 세플러인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짐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발을 내딛으려 합니다.



품질경영사업부 품질보증팀 사원 이범주

취업난이 심각한 요즘 무엇보다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할 수 있는 곳이 다른 아닌 세플러코리아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이범주'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입가에 빙그레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품질경영사업부 품질보증팀 사원 한유동

어려운 경이에도 회사의 일원으로 채용해 주신 점에 감사히 생각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회사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회사와 가정 모두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금연을 비롯한 건강관리 역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Friedrich-Alexander University Erlangen-Nuernberg 창원 연구소 방문

# FAU 대학원 부산캠퍼스와 세플러코리아 간 산학협력 협의

2014년 3월 20일 독일 Friedrich-Alexander University(이하 FAU) Erlangen-Nuernberg 총장인 Mr. Thomas A. H. Schoeck와 차기 총장 Dr. Sybille Reichert, 공학부 학장 Prof. Dr. Paul Froeba, 생명공학부 학장 Prof. Dr. Rainer Buchholz가 FAU 부산캠퍼스 설립을 계기로 세플러코리아와의 산학협력을 협의하고자 창원 연구소를 방문했다. 당사에서는 연구소장인 이대용 상무와 경영지원부문장인 유근성 상무가 회의에 참가했다. 이 날 방문에서 FAU와 세플러코리아는 상호 소개와 함께 향후 산학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FAU 방문자들을 위한 시험실 견학도 이루어졌다.



FAU Erlangen-Nuernberg는 1793년 브란덴부르크-바이로이트의 후작인 프리드리히와 브란덴부르크-안스바흐의 후작인 크리스찬 프리드리히 찰스 알렉산더가 설립하였다. 또한 Emil Fischer 등 3명의 노벨 수상자와 '오음의 법칙'을 만들어낸 Georg Simon Ohm, MP3를 발명한 Dr. Karheinz Brandenburg 등 공학 발전에 이바지한 우수한 졸업생과 교수진을 배출한 바 있다. 현재는 독일 내에서 5개 학부 27,300명의 재학생, 550명의 교수진과 대학부속병원을 보유한 공학 분야 대학 서열 상위 명문 국립 대학이다. 또한 세플러그룹과도 밀접한 협력관계가 있는 대학으로, 세플러그룹의 창업주인 게오르그 세플러 박사가 본 대학 이사회 멤버로 활동 한 바 있다. FAU는 한국 기계공업의 중심지인 창원, 울

산, 양산과 인접한 부산에 대학원 캠퍼스를 설립하며 대학교육의 글로벌화 및 한국과 독일 양국 간의 기술 교류를 꾀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FAU의 독일과 부산캠퍼스 학생들이 세플러그룹의 가족회사이자 한국 내 독일계 기업인 세플러코리아에서 인턴십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산학협력을 도모하고 있는 것. 세플러코리아 역시 독일 선진 공학 기술의 국내 도입에 있어 민간 가교의 역할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FAU 총장인 Mr. Thomas A. H. Schoeck는 창원 연구소 방문 이후 공식 서한을 통해 세플러코리아에서 보여준 따뜻한 환대에 감사하며, 향후 세플러코리아와의 산학협력이 FAU와 세플러코리아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 세플러 안산, 모범 납세자 대통령 표창 수상



세플러 안산은 지난 3일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성실납세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날 김재현 사장은 회사의 대표로서 제 48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에 참석하여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기념식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오디토리움)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시상은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이 진행하였다.

세플러안산은 열린 경영을 바탕으로 납세의 의무 역시 충실히 이행했음은 물론, 국가 산업 및 재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세청은 “세플러코리아는 외부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고객만족 및 지속성장이 가능한 회사를 만들어 지역사회와 국가재정에 기여했다”고 전했다.

같은 날 세플러코리아는 인천세관으로부터도 그간 보여준 적극적인 세정협조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관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 대학생 봉사단 'EVERGREEN' 2기 발대식

4월 4일, 지난해 1기를 발족하여 첫 활동을 시작했던 세플러코리아 대학생 봉사단 'EVERGREEN'의 2기 발대식이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경영지원팀의 주관하에 경영지원부문 부문장인 유근성 상무가 봉사단원들에게 전하는 인사말로 시작된 2기 발대식은 앞으로의 봉사활동에 대한 일정 소개 및 봉사단원 간의 자기소개 시간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봉사활동에 앞서 참가자들이 가졌으면 하는 마음가짐에 대한 경영지원팀 이성규 사원(대학생 봉사단 담당자)의 끝인사로 마무리되었다.

4월 4일을 시작으로 4월 10~11일에는 전주, 창원 지역 대학생 봉사단의 발대식이 진행되었으며, 서울/경기 지역에서는 25명, 창원/



전주 지역에서는 10여 명의 봉사단원을 각각 선발하여 올해 12월 까지 함께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4 Spring

## Schaeffler Korea News

서울 사무소 · PM/LM 어플리케이션 세미나



1월 10일, 중부시판영업팀 구로사무소에서 PM/LM 어플리케이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PM/LM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소개 및 설명이 진행되었으며, 고객 대리점 사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참석 교육자들의 관련 지식수준을 향상시키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서울 사무소 · 대리점 대표자 신년회



1월 17일, 롯데호텔 소공동점에서 세플러코리아 대리점 대표자 신년회가 열렸다. 임직원 및 대리점 대표자 소개와 함께, 2013년 대리점의 성과를 축하하는 의미로 대리점의 성장성이나 공헌도에 따른 시상도 진행하였다. 김재현 사장의 감사 인사와 경제전망, 매출현황 및 대리점 정책 등에 대한 김용진 Industrial 부문장의 발표가 이어졌고, 모두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며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서울 사무소 · BearinX 온라인 트레이닝



2월 4~5일, 이틀에 걸쳐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BearinX 온라인 트레이닝을 실시하였다. 남부지역 고객들 중 교육이 필요한 지원자들이 몰려 높은 참석률을 보였다. 이번 교육은 교육생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해 참여하였으며, 당사 프로그램 교육에 대한 열의가 돋보이는 자리이기도 했다.

향후 세플러코리아는 이와 같은 교육을 더 개최함으로써 고객들에게 당사의 기술력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예정이다.

서울사무소 · 서플라이어 데이



2월 21일, 창원 풀만호텔에서 2014년도 서플라이어 데이가 개최되었다. 우수 협력업체에 대한 시상과 함께 김재현 사장의 감사 인사와 경영 환경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고, AP 및 각 구매 파트의 주요 목표에 대한 발표도 진행되었다.

안산 · 2014년 1분기 에너지 및 환경안전 통합 보고회



안산공장에서는 공장장, 부서팀장, 현장주임, 반장 및 조장과 함께 2014년 1분기 에너지 및 환경안전 통합 보고회를 실시하였다. 2014년도부터는 환경안전뿐만 아니라 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보고회를 진행해나감으로써 환경안전과 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주요 사안들이 협의되고 공유되는 자리로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

2014 Spring

안산 · 제 2회 에너지 환경안전 통합 워크숍



2월 13~14일, 한국지역 제2회 에너지 환경안전 통합 워크숍을 창원공장에서 실시하였다. 통합 워크숍에는 창원/전주/안산공장의 담당 코디네이터들이 모두 참석하여 환경안전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고예방,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였다.

안산 · 명랑운동회 실시



안산공장에서는 조직활성화 및 임직원 간 소통의 자리 마련을 위하여 팀 빌딩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다. 경기 종목은 젠가, 탁구, 단체줄넘기, 빨대로 컵 넘기기 등 다양한 게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주 화요일 전문직은 점심시간에, 일반직은 오후 5시부터 토너먼트식으로 게임을 진행하고 있다.

안산 · 안산공장 생일 축하 행사 실시



안산공장에서는 2014년 1월부터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생일을 구분하여 단위 조직별로 생일 축하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안산 · 전문직 대상, 공장장 간담회 실시



안산공장에서는 '건강한 Ansan Plant 2014'의 일환으로, 공장 경영목표 및 주요 당부사항 설명을 통한 이해 증진, 공감대 형성과 함께 상호 의견 및 애로사항 교환 성취를 통한 업무개선 토의 간담회를 매월 첫째, 셋째 화요일에 실시하고 있다.

전주 · 2014년 시무식 및 공장장 취임식



1월 2일, 전주공장 시무식 및 박찬우 상무의 전주 공장장 취임식이 진행되었다. 시무식 행사 및 2014년 사장님 신년사 대독과 함께 1월 월례조회를 진행하며 사원 모두가 직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전주 · FfQ Axiom 리더 워크숍



3월 14~15일 전주 연수원에서 FfQ Axiom 리더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2일간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2014년도부터 새롭게 수립되는 Fit for Quality 활동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무결점(Zero Defect) 달성을 위한 각 항목별 중점사항들을 공유하였다.

전주 · 사원자녀 영어교육 입학식



3월 5일, 사교육비 절감과 사원 가족과의 유대 강화를 위해 진행 중인 사원자녀 영어교육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사원자녀 18명이 영어학원 입학식을 가졌다.

전주 · 임직원 봉사활동



3월 15일, 전주공장 생산1팀과 사업관리팀 직원 및 가족 23명은 송천나눔지역아동센터에 방문하여 시설 대청소를 실시하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학습지도도 진행하였다. 전주공장은 송천나눔지역아동센터에 매달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전주 ·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3월 20일, 전주지부 노동조합은 제25회 창립기념일을 맞이하여 전주공장 조합원들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전달하였고, 100여 명의 직원이 참석한 참암산(전북 군산시 소재) 산행을 실시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창원 · 노동조합 대의원 대회



3월 13일, 세플러코리아 노동조합은 창원1공장 강당에서 제51차 세플러코리아 노동조합 대의원 대회를 가졌다. 1부 기념식 행사는 모범조합원 표창, 축사, 대회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2부 행사는 본대회로서 대의원 임명, 2013년도 사업결산보고, 2014년도 사업 계획 발표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상부단체 파견 대의원을 선출하였다.

창원 · 사내협력사 환경안전 간담회

3월 14일, 오후 3시부터 사내 출입 협력사를 대상으로 환경안전팀의 환경안전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날씨 변화로 인한 개인 안전사고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사내 출입시 안전규정과 기초 Rule을 준수할 것을 독려하는 한편 상주 협력사에 대한 고충상담도 실시하였다.

창원 · 창원공장 일반특수검진 실시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13일간, 창원공장에서 2014년도 일반특수검진이 진행되었다. 본 검진에서는 기초건강검진과 혈액, 소변, X-ray 및 청력 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한 개인 건강 및 생활 개선에 대한 상담도 이루어졌다.

창원 · 제 17차 GPF 미팅



3월 10~11일 양일간 제17차 GPF(Global Production Forum)가 창원에서 열렸다. 창원 풀만호텔에서 실시된 본 행사에는 GPF 멤버 37명이 참석하였으며, Move와 Quality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또한 3월 11일에는 창원공장을 방문하여 벤치마킹 시간도 가졌다.

창원 · 환경안전 보고회



3월 18일, 오전 11시부터 창원공장 1층 강당에서 환경안전팀 주관 환경안전 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는 환경안전 주요 이슈 안내와 PU별 개선사례 발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료 시청 등으로 진행되었다.

창원 · 봄맞이 대청소 활동



3월 19일, 창원시 성산구청이 주관하는 봄맞이 대청소 활동에 참석한 창원공장 임직원 12명은 창원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담당구역 청소를 진행했다. 임직원들은 창원1공장 주변 지역인 성산교부터 목동교까지 약 1.5km에 이르는 구간의 낙엽을 쓸고 쓰레기를 주우며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였다.

연구소 · 스트러트 베어링 내구시험기 운영 교육



1월 4일부터 18일까지 보름간, 세플러치이나 소속의 Mr. Gao, Mr. Peng 외 2명은 세플러치코리아 창원 연구소를 방문하여 2013년에 도입된 스트러트 베어링 내구시험기 시운전 및 운영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을 통해 고객사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스트러트 베어링의 성능을 향상시킴으로써 매출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연구소 · 전용기개발팀 풋살 경기 모임



2월 27일, 박종철 차장 외 전용기개발팀 소속 일반직 및 전문직 8명은 창원시 귀산동에 위치한 풋살 경기장에서 2시간 동안 풋살 경기를 하며 전용기개발팀 직원 간 팀워크를 다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소 · VEP(선행기술개발) 교육

3월 17일부터 21일 동안 Program Management Asia 소속 Ms. Elie Lee를 강사로 선행기술 개발절차와 선행기술 개발관리 프로그램인 Planisware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교육을 통해 세플러그룹의 표준절차에 맞는 선행기술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Schaeffler Hotline

서울사무소

2013. 12

구매팀  
최종훈 | 14일  
본인 결혼



중부 직남영업팀  
정진호 | 14일  
본인 결혼

수급팀  
서관후 | 22일  
부친 회갑

2014. 01

남부 시판영업팀  
정은화 | 22일  
부친상

2014. 02

사업관리팀  
최원 | 3일  
부친 회갑

인사팀  
장철수 | 4일  
자녀 출산

정보시스템팀  
정해경 | 5일  
모친 회갑

중부 시판영업팀  
신승희 | 7일  
부친 회갑

일반구매파트  
정현철 | 17일  
부친 회갑

남부 시판영업팀  
성기봉 | 26일  
장인상

인사팀  
정은선 | 28일  
자녀 출산



2014. 03

재경팀  
김지영 | 15일  
자녀 출산

엔진시스템개발팀  
신희정 | 17일  
시모 회갑

창원공장

2013. 12

테이퍼베어링열처리팀  
최종대 | 12일  
장모 회갑

테이퍼롤러생산팀  
김광연 | 13일  
장인 회갑

유틸리티운영팀  
김민수 | 16일  
부친 회갑

살비보전1팀  
김본기 | 21일  
자녀 결혼

테이퍼베어링열처리팀  
이영규 | 21일  
본인 결혼

볼베어링열처리팀  
배수환 | 22일  
자녀 결혼

테이퍼베어링열처리팀  
서태일 | 27일  
부친 회갑

단조팀  
전용택 | 28일  
모친상

볼베어링생산1팀  
박우집 | 28일  
장모상

2014. 01

테이퍼롤러생산팀  
이학민 | 2일  
자녀 출산

테이퍼베어링생산팀  
강성구 | 4일  
자녀 결혼

테이퍼롤러생산팀  
김동주 | 7일  
장인상

테이퍼베어링생산팀  
김희철 | 10일  
장모 회갑

살비보전2팀  
김성진 | 11일  
장인 회갑

품질보증팀 창원  
이태훈 | 11일  
본인 결혼

테이퍼베어링생산팀  
손용암 | 17일  
모친 회갑

단조팀  
남경원 | 18일  
부친 회갑

볼베어링생산3팀  
강동오 | 20일  
자녀 출산

테이퍼베어링열처리팀  
오태근 | 29일  
모친상

환경안전팀  
김명진 | 31일  
부친상

테이퍼롤러생산팀  
이태웅 | 1일  
부친상

테이퍼롤러생산팀  
강우혁 | 3일  
부친상

선식팀  
백봉정 | 4일  
부친상

품질보증팀 창원  
송동원 | 4일  
모친 회갑

볼베어링생산2팀  
이창환 | 6일  
숙부상

단조팀  
이광휘 | 8일  
자녀 결혼

테이퍼롤러생산팀  
윤정배 | 8일  
장인상

볼베어링생산2팀  
이규오 | 10일  
모친상

볼베어링생산2팀  
전복표 | 10일  
숙모상

단조팀  
한영준 | 13일  
숙부상

테이퍼롤러생산팀  
최재규 | 13일  
자녀 출산

테이퍼베어링생산팀  
오유찬 | 16일  
자녀 결혼

환경안전팀  
원준길 | 17일  
자녀 출산

볼베어링열처리팀  
황삼욱 | 19일  
장모 회갑

공정개발팀  
이종석 | 21일  
장인상

볼베어링열처리팀  
양성식 | 22일  
자녀 결혼

볼베어링생산1팀  
박진호 | 23일  
본인 결혼

테이퍼롤러생산팀  
안병희 | 24일  
친조부상

테이퍼베어링생산팀  
박세준 | 25일  
모친상

테이퍼롤러생산팀  
백중현 | 28일  
모친 회갑

2014. 03

공장운영실  
박노석 | 5일  
부친상

볼베어링생산2팀  
전복표 | 5일  
장모 회갑

품질보증팀 창원  
이범주 | 5일  
자녀 출산

안산공장

2013. 12

살비보전팀  
유선호 | 21일  
본인 결혼

살비보전팀  
최영진 | 21일  
본인 결혼

살비보전팀  
유선호 | 21일  
본인 결혼

이영훈 | 10일  
모친 회갑

생산팀  
정희용 | 20일  
장인 칠순



2014. 03

생산팀  
최승호 | 1일  
장인상

살비보전팀  
신현라 | 15일  
모친 회갑

기술연구소  
김수동 | 17일  
모친 회갑

2014. 03

볼베어링생산3팀  
강성민 | 3일  
장모 회갑

테이퍼/볼베어링생산2팀  
이선택 | 7일  
부친 회갑

전주물류  
박진욱 | 10일  
부친상

열처리생산1팀  
임길수 | 10일  
자녀 출산

볼베어링생산3팀  
이흥태 | 11일  
자녀 출산

공정기술팀  
김부태 | 14일  
조모상

연구소

2014. 01

제품기술팀  
이형건 | 1일  
장인 회갑

제품기술팀  
김승준 | 5일  
본인 결혼

전용기개발팀  
최낙중 | 29일  
장모상

2014. 02

제품기술팀  
남윤건 | 6일  
친조부상

전용기개발팀  
최우호 | 13일  
부친상

제품기술팀  
남윤건 | 21일  
부친 회갑

제품기술팀  
이인욱 | 23일  
본인 결혼

2014.03

제품기술팀  
권순규 | 3일  
부친 회갑

제품기술팀  
추동균 | 9일  
장모 회갑